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8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2월 10일) 2020년 3월 4일 수요일

# 코로나19 확산… 불교계 선제 대응 '총력'



법보종찰 해인사가 일주문 앞에 내건 산문폐쇄 현수막. 사진제공=해인사


조계종 총무원 출입구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 장비와 손소독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법회가 중단돼 한산해진 조계사 경내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신성민 · 노덕현 · 윤호섭 · 하성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교계가 산문 폐쇄와 정기법회를 중단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2월 23일 발표한 2차 긴급 지침을 통해 "2월 24일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 성지순례, 교육 등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모든 모임은 전면 취소하라"고 소속 사찰과 단체에 공지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사찰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달라"면서 "한시적 산문폐쇄 등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검토"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석예불 등 사중 기도 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조속한 쾌차와 국민들의 심신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축원을 시행토록 했다.

또한 조계종은 2월 24일 총무원 청사와 서울 조계사 등 주요사찰에 열화상카메라와 진단장비, 체온계 등을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교구본사 · 도심사찰 출입 통제

이 같은 조계종의 긴급조치에 따라 전국 교구본사와 도심사찰들은 산문폐쇄와 법회 중단 등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법회 등 종교행사 개최에 대해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감염 예방을 위해 발 빠른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가야산과 해인사를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산문폐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인사는 "가야산과 해인사 방문 계획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산문을 폐쇄했다.

은해사는 "은해사 본사를 비롯한 말사 및 부속기관 등에서 봉행하는 기도 · 법회 등 대중이 모이는 모든 활동을 전면 취소하며 은해사 산내 종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도 전면 통제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방침에 따라 해당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회 중단도 이어지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법문을 잠정 중단했다.

통도사는 "2월 24일 초하루법회부터 3월 9일 출가열반재일 회향까지 이뤄지는 법회 가운데 불공과 축원, 회향시식은 자체적으로 계속 진행하지만 대중 법문은 금지하고 법회 차량 운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법회 동참을 원하는 신도들에게는 온라인 기도 접수를 권장, 법회의 불공과 축원, 회향시식의 녹화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가정에서 법회에 동참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사찰 방문 신도에 대한 발열체크와 경내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2월 22일 발표한 안내문을 통해 "2월 23일부터 모든 대중법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범어사를 찾는 관광객과 등산객의 출입 역시 차단된다. 신도들은 참배를 할 때는 사찰 입구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입장해야 하고, 경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법)는 2월 22일 공지를 통해 "초하루, 보름, 지장재일 법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내 방문객들이게 마스크 착용과 신체 접촉 지양을 당부했으며, 기도 시 1m이상 거리를 둘 것도 권고했다.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성우)는 "전북불교회관과 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봉행중인 일요법회와 관음재일법회 초하루 인등기도, 신중기도 등 각종 법회와 행사를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2월 24일 밝혔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초하루 법회와 오는 3월 7일 봉행될 정기법회를 모두 취소했으며, 대중 공양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자공)도 "코로나19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2월 24일 봉행 예정이었던 초하루법회가 취소됐다. 개인 참배는 가능하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증심사(주지 증현)는 2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 초하루, 초사흘, 칠성재일 법회를 전면 취소했다. 또한 공지를 통해 △기침 · 발열 · 호흡곤란 등 유증상자와 고령자, 만성질환자 사찰 출입 금지 △사찰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비치된 손 소독제 소독 후 법당 출입 등을 당부했다. 광주 무각사(주지 청학)도 지난 2월 20일부터 철야기도와 법회, 대중 공양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해인사 등 산문 폐쇄와 통제중**
**전국 사찰들 정기법회 중단해**
**불교계 행사 · 교육 등도 연기**
**사회적 약자위한 기부 이어져**
**발빠른 대응에 정부 감사인사**
**종교지도자 "극복 발원 기도"**

전국 템플스테이도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전국 137개 사찰의 템플스테이 운영을 2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달간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운영 중지 기간의 단축 및 연장, 기타 추가 지침을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 학술 · 문화 등 불교계 행사 연기도

코로나19 확산에 3월부터 예정됐던 불교계 행사들도 연기되고 있다.

조계종은 3월 6일로 예정됐던 '백만원력 2차 열암곡 기도법회' 를 잠정 연기했고 현재 3월 12~20일 예정된 구족계 수계산림과 3월 6일 예정된 4급 승가고시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2월 말과 3월 초 예정인 사미니 승가대학과 기본선원 등의 기본교육기관 개학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기총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제40차 정기총회는 3월 25일로 연기됐다.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국비구니회의 비구니승가연구소 개소식과 2월 22일 개최 예정있던 21세기불교포럼 창립총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3월 1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마음선원 산하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은 3월 3일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대흥사 서산대사 유물 기획전' 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서산대사 탄신 500주년을 맞아 해남 대흥사가 소장하고 있는 서산대사 의발 등 유물 일괄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조계총림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2월 25일부터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도들과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관에 들어갔다.

불교문화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도 일정이 조정됐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불교합창아카데미 제3기 단원 모집 일정을 변경해 단원 면접과 개강을 3월 25일과 4월 1일로 각각 연기했다. (재)대한불교진흥원도 대원불교문화대학 1학기 개강을 3월 25일로 미뤘으며, 3월 2일부터 시작 예정이었던 불교문화강좌센터 강의 역시 4월 6일로 연기했다.

### "힘내세요"… 기부 · 메시지 잇달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마스크과 손세정제 등을 전달하는 보시행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는 2월 27일 부산시에 코로나19 피해복구 성금 1000만원을 해운정사 총무 신행 스님을 통해 오거돈 시장에게 전달했다.

위례 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대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받는 소외계층에 마스크 1만개와 손세정제 1000개를 2월 25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2월 7일 진행된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당시 사부대중이 후원한 공양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마스크 구입 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중 의견을 모아 정진 스님 중 호산, 도림, 인산 스님이 대표로 전달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2월 26일 서울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기원하며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으며, 법당에서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의식을 봉행했다.

불교 등 7대 종교지도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공동회장 원행)는 2월 25일 각 종교 대표자 명의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번 감염증 확산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정부와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라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능력을 신뢰하며, 종교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불교계의 선제 대응에 정부의 감사 인사도 이어졌다.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조계종에서 어느 종교 단체보다 발 빠르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줘 감사하다. 불교가 먼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줘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2월 25일 원행 스님을 예방한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도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조계종이 선뜻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며 "정부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민간을 통해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 나가기 위한 총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및 사설 2 · 3면〉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철거–보관–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Weekly Focus

코로나19 확산과
온라인 불교




사진 왼쪽부터 '목탁소리' 유튜브채널, 조계종 출가열반 기도 SNS 인증 이벤트, 부산 홍법사 유튜브 채널, 조계사 카카오톡 플친 채널.

# 코로나19 新풍속도 '온라인' 신행 포교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종교계 안팎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행사를 온라인 법회나 기도 등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종이 2월 24일부터 신도들이 모이는 모든 법회를 중지하면서 이러한 온라인 기도나 법회 등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SNS통한 출가 · 열반 기도 인증

가장 먼저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지홍)은 3월 2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출가 · 열반재일 정진주간을 맞이해 2월 24일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을 택해 개별적으로 정진하고 SNS로 인증하는 수행정진 행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동참 방법은 출가 · 열반재일 정진주간 동안 각자 정진하는 모습과 수행 마지막날인 3월 9일 수행점검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수행정진 참여 이벤트'에 게시하면 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찰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수행을 이어가고 SNS를 통해 수행 전문가들이 상담과 지도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밖에 개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출가열반정진' 입력하면 500명을 추첨해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포교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수행점검 및 일지를 담은 온라인 수행정진 리플릿을 제작해 수도권 사찰 및 포교, 신도단체에 1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리플릿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행이 중심이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출가 · 열반재일 수행정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코로나 확산 영남지역 온라인 활용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영남지역의 사찰들은 산문 폐쇄 후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법회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홍법사의 경우 대중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의 사시불공을 유튜브로 생중계 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찰을 찾지 못하는 신도들이 가정에서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다. 2월 26일 진행된 초하루법회는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진행했다. 홍법사의 경우 제사의 경우도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실시간 채널을 열 예정이다.

**조계종, 출가열반기도 SNS 인증**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선물 증정**

**영남사찰 유튜브서 실시간 법회**
**법문 · 행사 명상 업로드도 활발**

**오프라인 보시 치중돼 확산한계**
**포교 방편으로 다양한 활동 가능**

부산 혜원정사는 기존 페이스북과 밴드, 카카오스토리로 신행 활동을 점검한다. 신행단체 단체톡을 활용해 법문을 올리고 삼귀의 오계와 또한 팔관재계를 읽도록 하는 방법이다. 재가 안거 선택 수행인 사경, 108배 등 자신의 수행 근기 맞는 수행을 선택해 수행하도록 하고 취침 전 30분간 점검 후 마무리하는 수행을 권하고 있다.

해인사 부산포교당도 실시간 라이브 불공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오전 10시 사시불공, 일요법회 법문, 각 재일마다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해인사 부산포교당은 온라인 포교를 위해 방송장비를 구입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을 맞아 '코로나 19로 보는 불교의 미래' 법문을 공개해 화제가 됐다.

주지 대휴 스님은 "혼자서 하려니 다른 SNS는 힘이 들어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많은 곳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좋은 포교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채널 외에도 기존 법회와 법문을 정리한 영상을 공유하는 곳도 늘고 있다. 양산 통도사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법문을 전달한다. 유튜브 채널은 세계문화유산 통도사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부산 금련사는 2일에 한차례씩 동영상 설법을 유튜브와 SNS로 올리고 있다. 현재는 법회를 하지 못해 짝수날 저녁 9시에 영상이 업로드 된다. 이밖에 부산 범어사와 대광명사 등 다양한 사찰들은 문자 등을 통해 신행정보를 공지하고 있다.

부산 법련사 주지 법상 스님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불교서 40대 이하의 맞벌이 부부들의 신행활동을 이끌기 위해서는 온라인 포교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신행 확산 가능성은?

온라인 신행 및 교육활동 증진을 위해 조계종 포교원은 2019년 한해 동안 신행불교대학 16곳을 운영한 바 있다. 기존 불교대학과 달리 온라인 불교대학을 통한 교육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신행불교대학의 교과목 신청 내역을 보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방식을 선택한 사찰은 3곳에 불과했다. 조계종 디지털 불교대학의 강의내용을 활용해 출결과 수강점검이 가능한 장점에도 사찰 측의 선택은 저조했다.

당시 현장의 목소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한 불교대학 관계자는 "사찰 신행활동으로 이어지게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아직까지 많은 신도들이 사찰에 나와서 기도비와 보시금 등을 내기 때문에 사찰 재정에서 온라인에 치중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온라인 신행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포교 방편과 함께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기도에 치중된 사찰 재정 수입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사찰 수입과 별개로 포교 방법으로 온라인 법회와 강좌가 오프라인 법회 보조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높다.

현재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여 명을 보유한 제따와나선원의 정념 스님은 "꾸준히 있었던 법회 영상과 법회 후 스님과의 질의응답을 모은 자료가 유튜브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서울 방배동에서 춘천으로 사찰이 이동하며 먼 곳에 있는 신도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신도들이 처음엔 어색해하고 힘들어해도 금방 적응해 활성화 됐다. 조회수에 신경 쓰지 말고 법보시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디야나선원 혜안 스님은 명상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 '보디야나선원 명상TV'을 운영하고 있다. 혜안 스님은 "사찰 재정과 신도 조직관리 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사찰로 나와서 대면접촉하며 신행활동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신도들의 편의성 증대와 함께 명상, 상담 등 불자 외의 사람들에게도 전법 포교 하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향후 온라인 법회와 기도 등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하다"고 말했다.

기자의 펜

## 온라인 헌금 강요 바라보는 싸늘한 눈길

**코로나보다 강하다.**
**세금보다 우선한다.** –헌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웃종교계에 대한 풍자가 눈길을 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교도들에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라는 공지를 돌린 한 대형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다.

조계종의 법회 중단 지침을 두고 교계 안팎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초하루법회 등 사찰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행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시 이웃종교계처럼 온라인 보시 등을 통해 수입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종교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신심이다.

온라인 전법과 기도 등은 신심을 증장시키는 방편이다. 본말이 전도되어 수입을 위한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온라인 전법과 포교의 시대를 앞둔 지금, 순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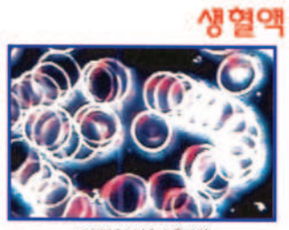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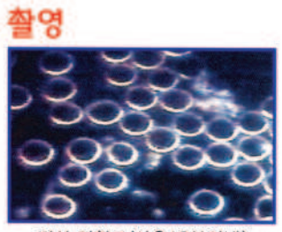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일무이의 이러한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을 99.9% 정균, 감소하는 ORAL MATE®(치약) · BLOOD MATE®(비누)를 들어보셨습니까?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뇌파가 안정되는 BLOOD MATE®(비누)를 들어보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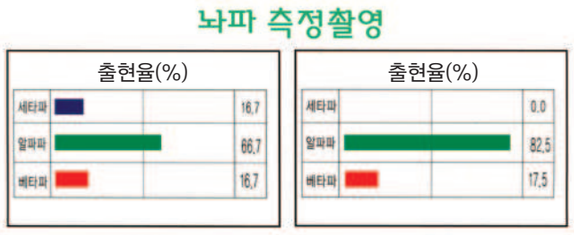

BLOOD MATE®(비누), ORAL MATE®(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ORAL MATE®(치약)이나 BLOOD MATE®(비누)는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부담이 전혀없이
폐렴균,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을 예방, 퇴치하고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무좀, 비듬,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을 예방, 퇴치합니다.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ORAL MATE®(치약)는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과식이나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빨리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이 흔들리는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않고 구취가 없으며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개발자 체험담
◉ 매년 겨울만 되면 감기로 고생했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하여 감기를 잊어버린(나은) 경험.
◉ 비염, 축농증으로 코막힘이 심하고 누런 콧물이 자주 나왔는데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코 속을 마사지한 후부터는 코가 뻥 뚫리고 누런 콧물이 없어졌다.
◉ BLOOD MATE®(비누) 거품으로 눈동자를 마사지하고 나서부터는 안경을 써야 볼 수 있던 신문을 안경 없이 볼 수 있고 눈동자에 힘이 생겼다.
◉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ORAL MATE®(치약)을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삼켰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의 샤워로 6년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아 누워본 적 없다.
◉ 잇몸이 아프거나 이가 시릴 때에는 ORAL MATE®(치약)을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그냥 없어진다.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75,000원 ●순비누:120g 개당 35,000원
ORAL MATE® ●치 약:120g 개당 21,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 코로나19 종단 모금, 자비행 확산을…

社 說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코로나 확산은 공업(共業)**
**가장 괴로울 이 살펴야**
**대승적 보살행이 붐제거**

**자비의 따뜻한 마음내어**
**불교의 참모습 발현되길**
**종단차원 성금모금 필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서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증폭되어 이 세상이 정말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간다. 참으로 마음에 달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사태,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뉘 있을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괴로움의 폭풍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이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따뜻한 마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아픔을 누구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지였기에 함께 해결해야 할 공업(共業)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가장 괴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



위례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은 2월 25일 천막결사 회향 당시 모인 보시금으로 마스크 1만개와 손 소독제 1천개를 준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한다. 거기에 하루 빨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순간, 오히려 나 혼자 속에 매몰되어 느끼던 괴로움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 된다는 대승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의미에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다. 대승적 보살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주체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대승적 자비행을 증명해야 할 시금석이 바로 코로나 19사태이다.

코로나 19가 사회적 약자층과 소외계층에게 주는 괴로움은 단순한 근심과 불편함을 넘어 참으로 삶의 기본조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향하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미 크게 일고 있다.

그 마음들이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불교 단체들에서 기금 마련 등의 보다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다. 이 흐름을 이어 참으로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큰 움직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큰 행보가 일어나야 한다. 개개인들의 마음을 잇고 엮어 보다 큰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국토건설의 길이다. 그러한 길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해기 위해 불교 종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불자들의 마음이 종단으로 모아지고, 그 모아진 마음을 통해 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다시 불자들을 고무하는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종단차원의 기금마련, 성금모금 등의 구체적 실천과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확산시키기를 촉구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등에 코로나19에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등이 밝혀지고, 그 빛에 담긴 자비의 마음이 누리를 밝히기를 기원한다.

## 동대 일산불교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동국대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해원)은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에 선정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전 진료 과정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지역민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병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신청했으며, 동국대일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91개 기관이 선정됐다.

동국대일산병원은 환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해 원내 대응 매뉴얼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의 별도 진료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동국대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안심병원 시스템 가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 계율 생활화… '비구니계 포살본' 발간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비구니계 포살본' 편역**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포살본이 새로 편역 · 발간됐다.

수원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원장 적연)은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할 계율을 담은 〈비구니계 포살본〉 편역 · 발간했다.

포살은 출가 스님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승가 대중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스님들이 지켜야할 계율 조목을 읽는 것을 말하며, 자자와 함께 승가 전체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의례이다.

이번에 발간된 봉녕사의 〈비구니계 포살본〉은 사분율장(四分律藏)의 연기에 부합되게 편역됐다. 한글화를 비롯해 가로쓰기, 율장언어 현대어 해석 등이 중점을 둬 계율이 생활화되고 현 세대에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봉녕사의 〈비구니계 포살본〉은 지난 2018년 발기와 검토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스님들이 연찬을 시작했으며, 12월 1차 편역을 완료했다.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 성우 스님과 해인사 전계사 무관 스님이 2차 증의와 올해 1월 사중 대중이 합송하며 윤독을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비구니계 포살본〉에 대해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은 "사미니계포살과 식차마나니계포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포살해야 한다"면서 "출가자의 각 신분에 적합한 포살을 각각 시행하므로 각자 위치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포살을 통해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춰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구족계 수계 대상 비구니 스님과 3급 법계 산림에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들께 법공양할 예정"이라며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계 포살본〉을 소지해 계율에 맞게 대처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나침판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녕사는 〈비구니계 포살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로 연기해 봉정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 동화사 · 쌍계사 · 범어사 주지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월 26일 임명장 수여**


지자 스님


덕운 스님


경선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지자 스님,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덕운(영담) 스님,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에 경선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교구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지자 스님은 진제 법원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했다. 팔공총림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하고,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다.

쌍계사 주지 덕운 스님은 고산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68년 수계했다. 제10~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석왕사 주지를 역임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윤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수계했다. 우곡사, 의림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 조계종 교육아사리 14명 신규 위촉

**초기불교 등 6개 분야서**
**12명 아사리 스님 재위촉**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아사리 스님 14명을 신규 위촉했다. 3년 임기를 마친 교육아사리 12명에 대해서도 재위촉했다.

이번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은 초기불교를 비롯한 6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초기불교 분야에는 비구니 경문 스님(스리랑카 캘라니야대 빠알리 불교학과 박사)이, 대승불교 분야에 정화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이, 선불교 분야에 철우(동국대 선학 박사) · 덕림(동국대 선학 박사) · 비구니 원상 스님(동국대 선학 박사)이 위촉됐다.

계율 분야에서는 비구니 도문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이, 한문불전 분야에 반산(은해사 승가대학원 삼장 강사 학위) · 비구니 법우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수료)이, 응용불교 분야에 선지(중앙승가대 실천불교학 박사) · 탄탄(원광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 하원(동국대 마케팅 박사) · 현주(동국대 미술사 박사) · 비구니 효신(경남대 국어학 박사) · 비구니 우관(인도 델리대 불교학 박사)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재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은 자목 · 법상 · 현견 · 정운 · 자현 · 원법 · 선암 · 정각 · 금강 · 재마 · 혜장 · 형운 스님이다. 신성민 기자

## 신흥사 총회 3월 23일… 지혜 스님 거론

주지 우송 스님의 사직으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3월 23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신흥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된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후보 접수는 3월 11~13일이다. 현재 신흥사 안팎에서는 차기 주지후보로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지혜 스님은 신흥사 조실이었던 설악무산 스님의 사제다. 평소 무산 스님선문답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에 지혜 스님은 무산 스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선시화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우송 스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 2020학년도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 모집반 | | 교육내용 | 강 주 | 요 일 | 시 간 | 모집조건 | 교육기간 |
|---|---|---|---|---|---|---|---|
| 1학년 | 1학기 | 기본 이론 및 예불, 각종 사물 다루는 법 |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 목 | 오후2시 ~오후6시 | 모든종단 승려 | 1년과정 |
| | 2학기 | 각단불공 및 시식 | | | | | |
| 2학년 | 1학기 | 범음범패, 바라작법, 나비작법등 고급과정 |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 금 | 오후2시 ~오후6시 | 초급반 이수자 | 1년과정 |
| | 2학기 | 실전대비 의식진행 전문과정 | | | | | |

◈응시자격
- 입 학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의 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 전형일정 : 2020년 2월 ~ 3월말까지(접수가능)
- 개 강 일 : 2020년 3월 19일(목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 입학문의 :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2월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

# 500호 발간 앞둔 월간 〈연꽃〉

## (사)동련, 오는 6월 기념행사… 전국구 연꽃문화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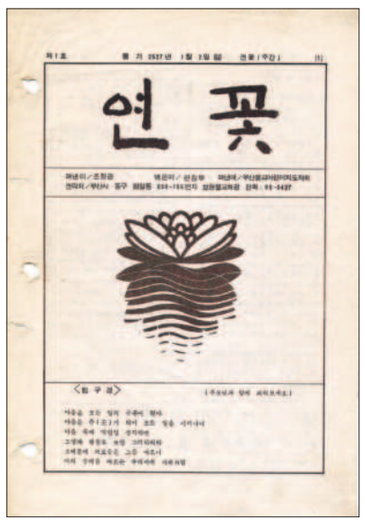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83년 1월 소책자로 첫 발간**
**어린이 법회 가이드북 활용돼**
**300여 전국사찰 · 해외 배송도**
**"웹진 · 모바일 매체 변화 고민"**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강조와 논쟁만 있을 뿐 어느 누구 하나 진득하게 실천하고 이끄는 이가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1983년 1월부터 꾸준하게 어린이법회를 위한 문서 포교를 이어오고, 수많은 노하우를 전수하는 곳이 있다. 어린이 포교에 관심을 가져본 불자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신공)이다.

꾸준한 활동과 노력을 대변하듯 오랜 기간 어린이와 함께한 어린이 전문 포교지 월간 〈연꽃〉이 500회를 앞두고 있다. 오는 6월 사단법인 동련은 〈연꽃〉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대중이 함께 동참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문서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월간 〈연꽃〉은 1983년 1월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회가 발족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법회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됐다. 처음에는 짧은 식순과 사찰 어린이 회명이 소개된 작은 책자였지만 100호를 발간할 때쯤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관심을 보이며 제작 요청이 들어왔고, 점차 발전했다. 이후 16페이지로 확장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사단법인 동련은 〈연꽃〉뿐 아니라 연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지침서 〈동련〉도 배포해 활용도를 높였고, 교사들의 역량 키우기에도 앞장섰다. 현재 〈연꽃〉은 후원으로 제작돼 불교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을 비롯해 해외 14개 어린이 법회, 전국 300여 어린이 법회에 보급되고 있다.



사단법인 동련이 1983년 최초로 발간한 어린이 포교지 월간 〈연꽃〉.

최미선 사무국장은 "그동안 연꽃 어린이 기자단도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위해 활동했는데 예산 문제에서 항상 어려움을 마주해야 했다"며 "관련 책자를 여러 가지로 내긴 했지만 지금은 〈연꽃〉지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사 지침서인 〈동련〉은 파일과 CD 등에 담아 요청하는 곳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준 덕분에 유지가 가능했다. 무엇보다 이익보다는 어린이 포교에 마음을 내어 함께 해준 대안기획 사장님과 여러 불자님들께 감사하다"고 부연했다.

월간 〈연꽃〉은 표지부터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연꽃문화제에 참가한 아이들의 그림을 담아 친근함을 더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귀의와 사홍서원, 반야심경, 오계를 담은 첫 페이지와 감사하는 마음을 글어 낼 수 있는 감사장, 동화, 찬불가, 경전 퀴즈 등이 담긴다. 아울러 교사 연수 및 어린이 포교와 관련된 각종 행사 소식도 담아 사찰 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최미선 국장은 이 같은 구성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최 국장은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 학년별로 더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구성하고 싶다. 또 기자단들이 활동하는 어린이 참여 코너를 더 늘리고 싶지만 예산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며 "웹진이나 모바일 이북(E-book)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 중이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동련은 올해 '제36회 전국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연꽃〉 500호 발간을 기념하며 열리는 문화제는 어린이들의 전국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개별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전국연꽃문화제 참가 대상은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이며 참가 부문은 글짓기와 그리기로 나뉜다. 주제는 '행복한 시간'과 '친구'이다. 문화제 일정은 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경남지역은 4월 11일 김해 동림선원에서 열리며, 서울 · 경기는 4월 12일 의왕 청계사, 부산지역은 4월 18일 부산시민공원, 대구는 4월 30일 덕암사 일원이다. 울산지역은 4월 30일 정토사에서 개최되며, 밀양은 5월 2일 용궁사, 광주 · 전남은 5월 9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 공모전은 5월 30일이며 동련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하지만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사무국 공지를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 최미선 사무국장은 "현재 계획에 맞춰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부처님 오신날을 기점으로 행사를 마련하려 했지만 혹시라도 일정이 안 된다면 별도의 행사를 준비해 일정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51)864-4570

# "삼존불 개금불사, 공덕 쌓아요"

## 부산 동명불원, 9월 점안 예정
## 향후 유형문화재 등록도 추진

부산 남구에 위치한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가 시작된다. 동명불원 삼존불은 목불좌상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동명불원(주지 승찬)은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를 시작하는 공고를 내고 3월 중 입찰을 받는다. 동명불원 삼존불은 1977년 봉안됐으며 20년 전 처음으로 개금불사가 진행됐다. 이후 목불의 특성상 세월에 따른 균열이 일어났고, 개금된 부분이 떨어져 새 불사를 진행하기로 결의 했다.

동명불원 재단은 개금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개 입찰로 불사 담당자를 선정하고, 4월 부처님오신날 이후 본격적인 불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사 기간은 4개월가량을 예상하며, 9월 가을에 점안식이 봉행될 전망이다. 개금불사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개금불사 후 불교유형문화재로 등록해 불상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동명불원 대웅전 삼존불 개금불사가 시작된다. 사진은 동명불원 삼존불.

동명불원은 故강석진 동명목재 회장이 국가번영과 부모의 왕생극락을 빌고 동명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1만여 명의 근로자를 위해 건립했다. 대웅전 내 삼존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미륵보살, 오른편에 제화갈라보살을 모셨고, 목조좌불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16m이다.

주지 승찬 스님은 "개금불사는 진리의 옷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는 의식이자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공양이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가운데 개금하는 공덕보다 나은 공덕은 없다"며 "삼존불을 새롭게 장엄하는 개금불사 모연에 동참해 세세생생 복전이 될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 충만하시기를 발원한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051)626-4337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비상근무 전 · 의경 컵라면 격려

## 태고종 진성 스님, 완산경찰서에 100상자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이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비상근무 중인 전주 완산경찰서를 방문해 컵라면 100상자(1600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 스님은 2월 24일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를 방문해 연속되는 비상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 의경들의 부식으로 컵라면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사진〉

진성 스님은 "최근 전북지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 · 의경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도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원석 서장은 "스님의 방문으로 전 · 의경들이 큰 힘을 얻을 것 같다"고 감사인사를 전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산 탑사 신도회 나누우리 봉사단장 윤복길 회장, 천순희 탑밴드 봉사단장, 정종규 전주 다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자비의 쌀로 전한 따뜻한 情

## 제주 반야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쌀 기탁




제주 반야사(주지 수상)는 2월 26일 경내에서 제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자비의 쌀 1105㎏을 기탁했다.〈사진〉

쌀은 동지기도와 정초기도, 보름기도 등을 거치며 반야사 불자들이 불단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반야사는 올해로 12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반야사가 기탁한 쌀은 애월읍사무소와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도노인복지관 등에 전달됐다.

반야사 주지 수상 스님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이웃을 위해 반야사 대중의 뜻을 모아 다양한 방법으로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 응공조계종, 지역사회에 생필품 기탁

## 칠곡 약목면에 라면 100박스 · 생활용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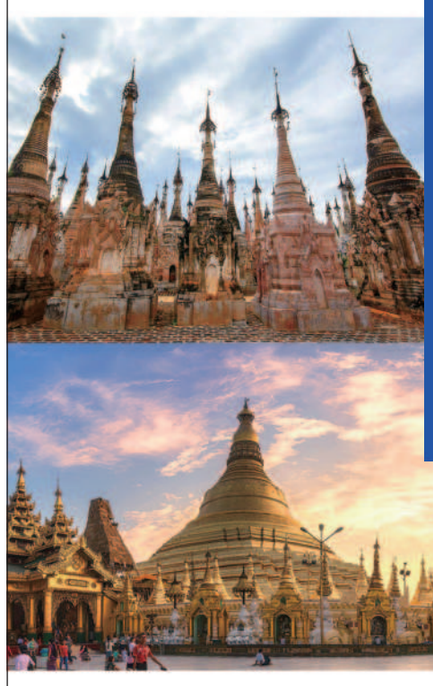


사단법인 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2월 20일 경북 칠곡군 약목면 면사무소에 라면 100박스와 생활용품 등을 기탁했다.〈사진〉 응공조계종이 기탁한 물품은 지역 내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된다. 전달식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경담 스님, 지암 스님, 경봉 스님, 해월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법운 스님은 "작은 일이라도 선한 마음으로 행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흉한 날이 된다"며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신구의 삼업을 버리고 또 버려 청정한 마음으로 모두가 경자년을 보냈으면 한다. 응공조계종도 전 종도들에게 맑은 마음을 갖도록 당부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기2564년을 맞이하여 미얀마관광청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얀마 완벽순례(6일)
부산출발-베트남/타이항공
특급호텔 148만원
출발일 5월~6월 2달한정!
접수기간: 4월30일까지
호텔:양곤 세도나/바간 헤리티지/만달레이 힐튼/헤호 프리스틴

마하연 주요일정
양곤-까바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황금대탑 쉐다곤
바간-치아사리가 모셔진 쉐지곤/아난다 파고다
만달레이-마하무니 파고다/미얀마 불교 중심지 사가잉
헤호-고대 스투파 군락지 까꾸/팡도우 파고다

* 인천출발(대한항공)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인도/스리랑카 및 타 지역 단체 문의 환영




21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YESGOOD.CO.LTD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 933호
www.mahayeon.com
문의전화 02-365-7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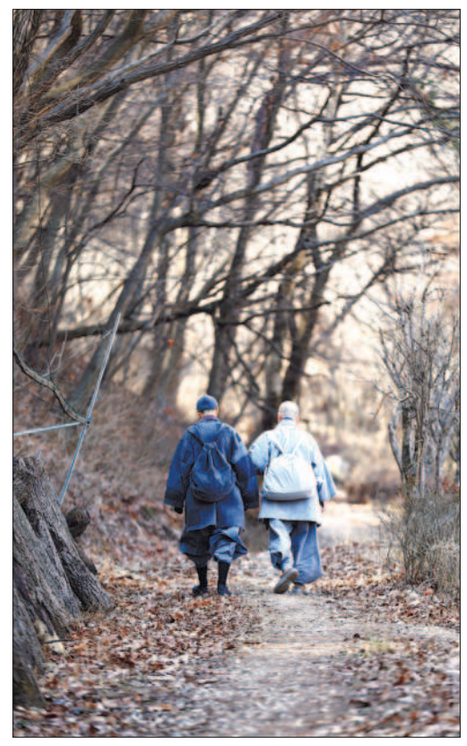
# 24시간 오로지 화두로 채운 1000일



수좌 스님들이 오등선원에서 화두 삼매에 든 모습.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이 직접 죽비를 들고 대중을 경책하고 있다. 스님은 천일결사에서 지도 스님의 존재가 정진의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오등선원 대중 스님들이 결사 회향 후 산문을 나서고 있다.

## 공주 오등선원 1000일 용맹정진 회향 현장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김주일 · 노덕현 기자

2017년 2월 26일, 충남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원 스님을 비롯한 24명 수좌 스님들이 1000일간 용맹결사에 오른 것이다. 그동안 조계종에서 봉암사 결사와 같은 3년 결사는 많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 결사는 흔치 않은 일이라 주목을 받았다. 깨달음 성취전 까지 결제와 해제가 따로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용맹정진의 대장정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3월 1일 오등선원서는 3년 결사를 회향하는 해제법회가 열렸다. 24명 수좌 스님 중 회향을 무사히 마친 수좌는 절반인 12명. 남은 숫자만 봐도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이 갔다. 용맹정진 동참 스님들은 정진 기간 동안 하루 24시간을 오로지 화두 일념 하나로 채웠다. 18시간 대중 좌선 뒤 나머지 시간은 공양과 개인 수행을 했다. 수좌들은 공양을 할 때도, 서서 걷는 행선 때도, 잠시 운력을 할 때도 모두 화두를 들었다. 1000일간 잠을 자지 않는 고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나 고된 일정이었던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스님도 있었다.

**잠 자지 않고 결사 임해**
**24명 수좌 중 12명 회향**
**“일념 삼매에 수마 사라져”**
**1년 용맹정진도 펼칠 예정**

이렇게 쉽지않은 3년 고행을 통해 그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 해제에 앞서 수좌 스님들의 마지막 정진 현장이 2월 11일 살포시 공개됐다. 적막한 선방서 정진하는 그 모습에서 결연함이 느껴졌다. 불조전등(佛祖傳燈)이 풍전등화 같다는 위기의식서 그 결기는 서릿발 같았다. 해제서 만난 스님들은 형형한 눈빛으로 대중들을 맞았다. “앉아 있는 이 자리서 죽겠다는 각오로 정진에 임했습니다. 코피를 쏟고, 몸이 아파도 끝까지 정진하겠다는 원력 하나로 버텼죠” 3년간 제대로 잠을 자지 않았지만 스님들의 모습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다.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이 오히려 누워 있는 일반인들보다 더욱 편해 보였다. 큰 고행을 통해 자신의 몸도 다스릴 줄 아는 지혜와 힘이 생긴 것 같았다.

공주 학림사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오등선원 인근에 재가자들이 정진하는 시민선원도 함께 마련해 재가 수행도 독려했다. 3년 결사에서는 6명의 재가자들도 함께 동참했다. 이외에도 30여 재가자들이 출퇴근 하며 정진에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학림사는 1986년 계룡산의 옛 제석사 터에 수행을 위해 대원 큰 스님이 개창한 곳으로, 오등선원은 〈전등록〉 〈광등록〉 〈속등록〉 〈연등회요〉 〈보등록〉 등 5개 어록의 〈오등회원(五燈會元)〉서 이름 붙여졌다. 산철 결제와 상관없이 매일 선풍이 드날리는 선불장으로 마련 된 곳이기에 이번 1000일 결사 회향은 또 다른 결사로 이어진다. 조실 대원 스님은 현재 1년동안 진행되는 용맹 정진을 새롭게 준비중이다.

대원 스님은 “잠 안자는 화두 참구가 7일도 어려운데 3년간 이어온 납자들이 있어 대견하다”며 “이런 구도 열정이 바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 **“끝없는 정진속에 시간은 무의미할 뿐”**

###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

천일결사 회향에 대해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은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했다. 3년 용맹결사는 과거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 등이 한 적이 있다. 하지만 3년간 잠을 자지 않고 한 용맹결사는 드문 일이었다. 그동안 학림사에서는 꾸준히 100일간 용맹정진을 11년 동안 진행해 왔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1000일 결사를 회향하게 됐다.

대원 스님은 “오로지 치열한 수행만이 시간으로 인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며 “그래서 정진은 생로병사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이 모여 함께 정진하는 만큼 초반에는 어려움도 많았다는 대원 스님은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정진하다보니 성격과 생각이 맞지 않는 일이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 때마다 3년 용맹결사에 임하는 근본 목적을 생각하게 했죠. 어떠한 장애가 생기더라도 꼭 돌파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의지들이 강하다 보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무사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원 스님은 “자칫 대중들이 다 흩어져서 갈 뻔했는데, 가지 않고 버틴 스님들이 있는 것도 이러한 결연한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의문이었다.

대원 스님은 오히려 이에 대해 반박했다. “잠이 쏟아질 때 잠을 안자려고 싸우다 보면 오히려 몸도 지치고 정신적으로 더 피로해져서 잠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잠이 올 때 잠이 오는 것을 막으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화두를 놓지 말고 일념으로 참구해가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대원 스님은 “지극히 내 몸과 마음을 기울여 꾸준히 전력투구해 참구하다 보면 그 일념으로 수마가 달아나죠. 그리고 1주일이 잠깐 사이에 지나간다. 배가 파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렵지만 파도를 타고 가면 쉽듯이 화두 일념이 되면 잠, 망상, 몸의 아픔도 일체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해 진다. 그래서 화두 일념 하면 일체 모든 것을 항복 받을 수 있죠”라고 설명했다. 화두 일념으로 타파는 할 수 있지만 잠에 대한 인간의 한계가 과연 극복 가능할까. 스님은 “생사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가 이 자리서 죽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화두에 전력투구하다보면 홀연히 일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화두 일념에도 몸이 힘든 것을 견뎌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은 노력하면 가능하지만,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대원 스님은 “ ‘아이고, 나 죽습니다’ 고 한 수좌도 있었죠. 정진하는 스님 중 한 명씩 만나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생사 결판의 지극한 노력서 화두 일념이 되어갔다고들 하더군요.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일상 생활, 꿈 속에서라도 화두가 일념이 되어 갈 정도로 공부가 됐다고 한다”며 수좌들의 생각을 전했다.

대원 스님은 수좌 스님들이 정진을 통해 적어도 중생심에 들 떠 있는 마음들은 모두 소진되었다고 봤다. 스님은 또한 “3년 마치고 1년간 용맹정진을 더 할 것”이라며 “나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직접 체험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백척간두에 나아가듯 생사를 던져보자는 비상한 각오로 결사를 해보자”고 수좌들에게 당부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200,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1일차 (5월 20일 수) | 2일차 (5월 21일 목) | 3일차 (5월 22일 금) |
|---|---|---|
| 마음치유와 수행 |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
| 현대인의 마음공부 | 현대인을 위한 포교 | |
| | 내 마음의 용광로 | |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3월 28일(토) ~ 5월 30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

## | 현불 논단 |

# 病을 다스리는 방법



석길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도배**
**불안 · 안심에는 두려움 전제돼**
**대중생활 속 개인 위생은 필수**

**온라인에 코로나19 정보 범람**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대다수**
**대중 두려움 조장하지 않아야**

**알지 못해 두려움 일어나지만**
**이성적인 대처법은 이미 있어**
**불안보다 몸의 위생에 신경을**

매일같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의 메인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관계 당국의 대처나 상황에 대한 불안과 안심이 사람들 사이에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이든 안심이든, 거기에는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음도 부정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승가의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지향해온 우리 불교 역시 공동체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강조해온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마하반야경(摩訶般若經)〉에는 "보살마하살은 입는 옷과 침구를 더럽게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기를 즐기므로 병이 적으니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보살마하살'이기 때문에 병이 적은 것이 아니고, '보살마하살이 위생관리를 하기 때문에' 병이 적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병이 없을 수는 없다. 인간으로서 사대육신을 가졌는데, 병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적절한 대처방법이 설명된다. 〈금광명경(金光明經)〉에는 "계절을 따라 오근(五根)의 사대(四大)가 뒤바뀌어 늘거나 줄거나 함으로써 몸에 병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에는, 좋은 의사에게 보여 적절한 시기에 잘 다스려 사대(四大)를 조화시키고, 병을 따라 음식을 조장하며, 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수행으로 병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기도로 병을 다스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병에 적절한 합리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수행이고,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역시 범람한다. 지방의 크지 않은 도시에 거주하는 필자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는 것은 역시 SNS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혹은 SNS를 통해 전파되는 정보들의 경우,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정보는 혼란을 초래하고, 나아가 두려움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생겨난 두려움은 대부분 그 대처방안에 따른 행동 역시 분명하기 마련이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최근 증폭되는 불안감의 많은 부분들은 '아는 데서' 기인하기보다는 '알지 못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염원인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최근 급속한 확산의 매개가 된 집단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적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아서 또 다른 불안감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가족 내부에서조차 해당 집단의 구성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니, 그 폐쇄성의 심각함이 사회 일반의 상식을 넘어선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폐쇄성이 다시 한 번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증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불교는 고래로 늘 앎에 의거한 대처를 강조해왔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처는 더 큰 화를 부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앎의 영역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각각이 다르기 마련이다. 몸의 병은 의사에 의지해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은 가르침에 의지해서 극복해야 하는 법이다. 마음의 불안보다 몸의 위생에 더욱 힘쓸 때이다.

## 社 說

# 위기서 빛난 불교계 예방책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교계 주요 사찰들이 산문 폐쇄와 정기법회를 중단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코로나19가 지역 감염 등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불교계도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조계종은 2월 23일 발표한 2차 긴급 지침을 통해 "2월 24일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모든 법회, 성지순례, 교육 등 대중들이 참여하는 행사와 모든 모임은 전면 취소하라"고 소속 사찰과 단체에 발 빠르게 공지했다. 이에 해인사를 비롯한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들은 법회를 중단하거나 산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템플스테이도 3월 30일까지 중단된다.

조계종은 2월 24일 총무원 청사와 서울 조계사 등 주요사찰에 열화상카메라와 진단장비, 체온계 등을 설치하고 출입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전시회와 교육강좌, 연수, 회의들도 잇달아 연기 결정을 내렸다.

불교계의 발 빠른 선제 대응은 특정 종교단체로 인해 급속하게 확산됐음에도 개신교단은 주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비교되며 세간에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가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월 24일과 25일 잇달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찾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어려운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계에서 가장 먼저 조계종이 선뜻 결단을 내려줘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분명 불교계가 보여준 일련의 조치들은 종교가 할 수 있는 실천행이다. 중생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고 법회를 중단하고 산문을 폐쇄한 불교계의 결단은 작금의 위기에서 더욱 빛났다.

# 용맹정진 1천일, 선풍진작 계기로

잠을 자지 않고 1000일을 지낼 수 있을까. 보통의 일반인들에게 이 질문을 해보자. 열에 열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일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이들이 있다. 공주 학림사 오등선원에서 천일결사를 회향한 12명의 수좌 스님들이다.

선원 정진에서 '용맹정진'은 잠을 자지 않고 오롯이 정진에만 매진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안거기간 마지막 일주일, 길어야 한두달을 용맹정진하게 된다.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선원 내에서는 졸음을 쫓기 위해 경책하는 죽비 소리가 퍼져나온다.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 스님을 비롯한 12명의 수좌 스님들은 3월 1일 천일 용맹정진 결사를 회향했다. 조계종 사상 천일 결사는 수차례 있었지만, 천일 용맹정진은 그야말로 드문 경우다.

어떻게 수마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은 바로 화두 삼매에 있었다. 하루 온종일 화두가 성성한 경지에 이르면 앉으나 서나 화두에 빠져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화두에 빠졌다 깨면 수일이 그대로 지나가기도 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정진에 있었다. 당초 24명의 스님들이 입재했지만 회향때는 절반 밖에 남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 차이에 있었다. 코피를 쏟고 병원에 실려가고, 안에서는 법거량으로 고성이 나오기도 했지만 끝까지 정진한 스님들이 있었다.

한국불교는 그동안 선풍 진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러한 선풍 진작이 일지 않은 데는 재가자들의 동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이러한 스님들의 정진에 대한 감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용맹정진 천일로 인해 새로운 선풍 진작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 특별기고

### 상월선원 1박 2일 체험을 다녀와서

# 三無서 三少로의 변화



조의연
동국대 영문과 교수

지난 2020년 1월 31일 이전과 현재(2월 26일)의 나에게는 분명 다른 것이 있었다. 1월 31일은 상월선원 하루 체험이 있는 시공간이었고, 지금은 그 업이 남아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1월 31일 하루 체험의 조건은 22시간 음식과 난방, 그리고 말 없는 三無의 시공간이었다. 지난 주말은 평소와 다르게 한 끼 덜 먹고, 난방 덜 하고, 그리고 말도 덜 하고 지냈다. 굳이 표현하자면 三少의 하루였다.

상월선원 수행 체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위였다. 우리 몸의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은 시간이 새벽 4시서 6시 사이라고 한다. 동트는 여명에 가장 추운데 인체도 지구의 한 부분이라 그런지 같나보다. 체험 공간은 저녁 7시경 0도로 떨어지더니 다음 날 아침 6시경에는 영하 2도로 곤두박질 쳤다. 냉기가 온 몸에 스며들어 정말 추웠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라도 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절로서 체온을 유지했고 절로서 몸과 마음을 참회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위 속 묵언 수행이 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 물었다.

순간 습관적으로 탄소 배출하는 생활 습관과 부정적 언사에 대한 부끄러움이 일어났다. 앞으로 겨울에는 1주일에 하루라도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덜 난방하기로 했다. 내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이 지구 온난화를 불러온 것에 대해 반성하며 가난과 추위에 떨고 더위에 지친 이웃의 처지를 헤아려 본다. 이것이 추위 속 좌선이 내게 가져온 생각과 생활의 변화다.

**덜 쓰고 먹고 말하는 三少행**
**1일 체험으로 귀중한 깨달음**
**비우고 걸러내야 새것 들어차**

상월선원 체험서 추위와 함께 힘들었던 것이 또 있다. 천막 밖서 들려오는 독경, 발원, 법회, 응원, 공연 등의 지속되는 소리 때문에 마음 집중시키기가 쉽지 않았다. 잡념이 들지 않게 하느라고 엄청 애를 썼다. 그래서인지 호흡과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럴수록 몸과 많이 친해짐도 느꼈다. 묵언 규율만 아니었으면 방 정리 정돈 울력 시간에 함께 한 도반에게 체험 공간 옆 법당의 큰 소음에 부정적인 짜증을 퍼부었을 것이다. 묵언은 외부 소리를 소음으로 명색하려던 내 안의 부정적 움직임을 사라지게 했다. 덜 먹으면 식재료나 음식 대상에 대한 행위를 줄일 수 있듯이, 덜 말하는 것은 분명 습에 이끌린 생각을 차단시켜 준다.

22시간의 금식 수행으로 나에게는 분명 평소보다 덜 먹는 삶의 변화가 생겼다. 언제부턴가 먹방 문화가 소확행 가면을 쓰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주말 하루 한 끼라도 안 먹고 내 몸도 쉬게 하고 내 주변도 쉬게 해보자. 1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우리 불자들이 정해놓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말하는 삼소의 생활을 해본다면 훨씬 충만해짐을 느낄 수 있다. 비워내야 새것이 들어 찰 수 있다는 진리도 새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종교인의 소확행이 아닐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현대불교
7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제 1283 호

# “민족苦 해결 통일운동은 호국불교”

## 법타 스님
### (조계종 원로의원)

**‘北조불련 연구’로 박사 학위 받아**
**조불련 전문 연구 박사 논문 ‘최초’**
**북한불교 총망라 종합 연구서 평가**

**美유학 중 다양한 정치이념 접하며**
**‘민족苦 해결 위한 통일운동’ 서원해**
**스님 방북 1호… 온갖 고초 겪기도**

**1992년 평불협 창립… 운동에 전념**
**사리원시 국수공장 열고 국수 배급**
**“밥이 통일”… 北 지원 아끼지 않아**

**5.24 조치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
**“美 휘둘리지 말고 민족문제 해결을”**
**불교계, 통일 운동 적극 지원나서야**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휴대전화 너머로 익숙한 노래 가사가 통화 연결음악으로 흘러나온다. 통화 연결음악으로도 통화의 주인공인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바로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이다.

법타 스님은 통일운동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통일운동’의 불길을 당긴 불교계 1세대 통일운동가이다.

평생을 수행자로서 통일운동에 매진해온 법타 스님이 이번에는 북한학 전문 연구자로 이름을 알렸다. 스님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로 올해 상반기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간 북한 종교 전반에 관련해 조선불교도연맹을 함께 다룬 연구는 있지만 조선불교도연맹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은 법타 스님이 최초다. 스님은 1996년 ‘최근세 50년 북한 종교 변화’로 미국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에는 ‘북한학’이라는 전문적 영역으로 발을 넓힌 것이다.

법타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을 비롯해 조선불교도연맹 역사와 조직체계, 문중, 법계, 신도조직, 사찰, 주요인물 등을 망라한 북한불교 종합 연구물이다. 실제 논문을 살펴보면 “북한불교의 뿌리를 캤다”는 스님의 자평이 과언은 아니다. 평생 모은 북한불교 자료들을 모두 수록했고, 그 중에는 스님이 발굴해 처음 공개하는 자료도 있다.

이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종교관과 사찰 현지지도’ 챕터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챕터에서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찰 현지지도 횟수를 정리하고 누구와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망라했다.

“1991년 방북해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유적지구 현지지도 내용이 정리된 전시 도판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만난 박물관장에게 도판의 촬영을 요청했고, 허락을 받아 촬영해 자료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현지지도 횟수와 내용은 북한의 종교 인식과 정책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같은 자료는 남한 사회에서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 “통일운동은 내 운명”

올해로 세납 76세를 맞은 법타 스님이 이처럼 열정을 갖고 북한불교 전반과 총괄조직인 조선불교도연맹을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이 세운 평생의 원력 때문이다.

법타 스님은 1985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반공국가라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더 다양한 정치이념을 만났고, “남북이 정치적으로 통일과 반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과 민족고(苦)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통일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든지 통일은 이야기해요. 하지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과 북의 정부 모두 반공과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만 했죠. 이런 상황에서 민족고(苦)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은 통일운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통일운동은 이 시대의 호국불교가 나아갈 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법타 스님이 ‘통일보살’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이 같은 발심 이후다. 그러다보니 ‘1호 스님’이라는 수식어가 자천타천으로 붙게 됐다. 법타 스님은 한국 여권을 가진 스님으로서는 첫 번째로 방북해 ‘방북 1호 스님’이 됐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재외거주 한국인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게 됐죠. 1989년 제13차 평양 축전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하고 싶어서 방북을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서 유학 중이었으니 재외 국민 조건을 갖춰 LA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출발해 서울에서 서의현 당시 총무원장 스님에게 방북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뒤 홍콩을 거쳐 중국 베이징 북한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북한 땅을 밟게 됐죠. 이제 30년이 지난 일입니다. 처음 북한에 갔을 때 제 승복을 보고 신기해했던 북한 주민들이 생각나네요.”

1992년 법타 스님은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한다. 귀국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 창립이다. 평불협은 불교계에서는 첫 번째 통일부 등록 불교계 통일단체로 남북한 교류와 지원에 다양한 역할을 했다.

가장 큰 족적은 황해도 사리원에 금강국수 공장을 설립한 것이다. 1998년 1월 가동을 시작한 금강국수 공장은 활성화 됐을 때에는 하루에 7700인분의 국수를 생산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평양에 금강빵공장을 설립해 평양 주민들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저는 ‘밥이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통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공장을 짓고 국수와 빵을 보급한 것입니다. 금강국수 공장과 금강빵공장을 세웠을 때가 통일운동을 하며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식품도 지원하고 양파 씨앗 등 농업 지원도 진행했죠. 의류, 신발, 생필품 등도 꾸준히 북한에 보냈습니다. 2012년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약 20년간 평불협이 북한에 지원한 물품들은 약 46억원 가량 됩니다.”

### 통일운동은 ‘인내’다

19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불교교류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금강산문화유적복구협약을 맺고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평양 법운암 단청과 삼존불 개금, 사리원 성불사 단청 및 삼존불 개금 등 북한 사찰과 불교문화재 보존사업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지난 2016년에는 조계종의 통일 종책을 전담하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으로 임명돼 종단 대북 사업을 총괄하기도 했다.

지금은 불교계 대표 통일운동가로 이야기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실제 스님은 ‘국보 1호’로도 불린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해서다. 법타 스님은 1994년 신공안정국 국면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과 불교를 함께 연구한 경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105일간 옥고를 치렀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주위에서 좌파, 빨갱이로 자신을 매도할 때였다.

“옥고는 통일운동하면서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위 스님과 대중이 저를 친북 승려, 좌파, 빨갱이로 매도할 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한 종단이 자체 통일 사업만을 신경쓰고 NGO단체에게는 무심할 때에도 마음이 좀 아팠죠. 제일 안타까운 것은 5.24조치 이후 한 발짝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대북 관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내렸던 5.24조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북한과의 교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님이 이끄는 평불협 역시 5.24조치 이후 어떤 활동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4.27판문점 선언 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스님은 “현 정부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통일 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대북 관계 진전이었지만, 4.27판문점 선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최근에는 북한의 ‘남한 패싱’이 이뤄지고 있죠. 정부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요구할 것은 자신있게 요구했으면 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교류의 물꼬는 민간에서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민간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면 대북 관계는 충분히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종단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내실화를 당부했다. 특히 내실화 부분에서는 “북한과 북한불교를 바로 보는 교육을 자주 열어 종단의 통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사부대중을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터뷰 말미, 법타 스님에게 앞으로 계획을 물었다. “죽을 때까지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북한 전역 사찰 성지순례, 탈북자 결연 사업 등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쏟아냈다.

“통일운동은 ‘인내’입니다.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버티면서 통일운동을 할 겁니다. 북한 동포에 삶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보살행입니다. 이것이 저의 수행입니다.”



**법타 스님**은… 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67년 1월 법주사에서 추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4월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85년 미국 유학 중 북한 자료를 보며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발원을 갖게 됐다. 이후 1989년 스님으로서는 최초로 방북하면 본격적인 통일운동을 시작했다.
1992년 귀국해 불교 최초 통일운동단체인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를 창립하고 30여 년 동안 북한에 옷과 밀가루 등을 전달하며 통일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동국대 정각원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에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통일 사업을 이끌었다.
총무원 총무부장,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2017년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됐다.
2018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 법타 스님의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는



### 북한불교 뿌리 찾아낸 전문 연구서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 스님은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연구’는 조선불교도연맹 역사와 조직체계 등을 망라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의 태동은 1946년 12월 26일 북조선불교도총연맹(1972년에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로 개칭) 결성 당시 상무위원으로 사회주의 승려 대부분이 취임해 북한 불교계를 이끌면서부터다. 실제 한국전쟁 이전 사회주의 성향의 승려 56명이 월북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의 종교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단체조직으로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조선불교도연맹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6국의 지도를 받으며, 또한 조국전선중앙위원회 제6국에 속한다. 중앙위원회에서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서기국에서 각 업무를 조율해 시행한다. 별도 기구로는 승려 대상 교육기관인 불교학원이 있고, 법계자격고시위원회가 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남한을 포함한 제3국과의 종교 교류와 북한 불교 정체성 유지, 사찰 관리 등이다.

조불련은 2003년 신설한 조불련 전국신도회가 신도조직과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주도하며, 회장 · 부회장 · 위원 관리직 · 일반 신도로 조직돼 있다. 운무 라영식 회장과 안심행 리현숙 부회장이 중심이며, 선죽리명희 위원과 성각 정영호 평양시신도회장이 주로 활동하고 있다.

법타 스님은 “이제 종교를 북한 사회의 한 부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불교도연맹의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함으로써 향후 남북한의 종교교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향후 이 같은 연구들로 사회주의 체제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밝히고 북한에 제공해 종교활동이 자유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6~3/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지금 이대로 좋다 | 법륜스님 | 정토 |
| 2 |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 생명현상과 연기 그리고 공 | 유선경/홍창성 | 운주사 |
| 3 |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 불교신문사 |
| 4 | 요가 디피카 | 현천스님 | 선요가 |
| 5 | 10분 치유 명상 : 문화 치유 명상 | 송주 김응철 | 불교신문사 |
| 6 | 천태소지관 | 천태지자/윤현로 | 운주사 |
| 7 | 행복해라 나 이 생에도 그대를 만났네 | 덕현스님 | 법화 |
| 8 | 무비스님의 유마경강설 (전3권) | 무비스님 | 담앤북스 |
| 9 | 왕생론 강기 : 세방 정토 극락 생불 학교의 20종 장엄 해설 | 도영스님 번역 | 비움과소통 |
| 10 | 수좌적명 : 봉암사 수좌 적명스님의 유고집 | 적명스님 | 불광출판사 |

책세상



기도의 비밀 : 법화삼매참법

명상클럽 펴냄/천태대사 지음, 각산 편역/1만8천원

# 기도 안하기 위해서 기도 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몸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또는 삶에 장애가 생겨 도무지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릴때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참나'를 만나야 합니다. 업장 소멸과 운명 전환은 오로지 이 '참 나'를 만나야만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업이 소멸돼 자기 정화가 이뤄지면 성격과 기질이 바뀌고, 그것이 변하면 팔자와 운명도 달라지니 어찌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업장을 녹이고 '참 나'를 만나는 기도 수행법이 바로 〈법화삼매참법〉이죠."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 스님의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를 모본으로 삼아 우리말로 편역한 〈기도의 비밀: 법화삼매참법〉을 펴낸 서울 강남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은 기도 수행의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법화삼매참법〉은 천태종 개조(開祖)인 중국의 고승, 천태지의 대사가 〈법화경〉을 토대로 삼매(三昧)의 실천법을 저술한 〈법화삼매참의〉를 모본으로 삼아, 참선명상 전문가인 각산 스님〈사진 위〉이 이해하기 쉽게 정밀한 주석 해설로 풀고, 불법의 핵심 가르침들은 부처님의 원음이 담긴 초기불전의 원전을 토대로 일일이 출처를 제시해가며, 오랜 시간 정성 들여 편역한 기도경의 진수(眞髓)이다. 이는 특히 대승불교권서 1500여 년간 수많은 이들의 경이로운 기도성취 영험이 입증돼 전해진 영묘한 기도경으로, 부처님께서 손수 기도해주신 '초기불교 기도경'의 영험 성취와, 독경 예참과 좌선 수행을 겸한 선(禪)·교(敎) 일치로 깨달음의 필수인 '해탈삼매'가 동시에 구현된 절묘한 수행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이 기도경은 기도수행에 처음 입문해 기도법을 잘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삼칠일 동안 순서에 따라 그냥 독송하며 읽어 나가기만 해도, 어느 날 저절로 자기 마음이 보이며 하염없는 회한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몸과 마음의 정화가 절로 이뤄져 삶의 장애들이 극복되고 소원성취 될 정도로, 기도 영험이 경이롭고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신묘함은 본문의 기도 체험 수기들과 숱한 입소문들이 여실히 입증해 준다.

'누구나 스스로 마음먹은 것을 믿으면 부처의 능력이 작용된다'는 '구원실성(久遠實成)'과, 원융무애(圓融無碍)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핵심사상으로 담아 일승(一乘) 실천법을 제시한 〈법화삼매참법〉은 불교계 일각의 교조화 된 수행 방편과 법통주의의 절대화를 지양해, 선교겸수(禪敎兼修)의 역동적 수행가풍을 되살려야 한다는 진정한 자각으로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구원실성'은 '누구나 스스로 마음 먹은 것을 믿으면 부처의 능력이 작용된다'는 의미로로 〈법화경〉의 근간 가르침이다. 중생은 본래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 '대자유의 본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삼귀일'은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이 모든 사상과 이념의 분란과 투쟁을 내려놓고 열반의 세계를 향하는 일승으로 원융무애한 대자유인으로 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승(乘)은 중생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이나 수행법이다. 또한 성문승은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연각승은 연기의 이치를 알게 하는, 보살승은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는 가르침이다. 회삼귀일은 대립하는 모든 이론을 조화시키려고 한 원효대사(元曉大師,617~686)의 화쟁사상(和諍思想)과 근본정신에서 맥을 같이한다.

각산 스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피력한다. "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기도에만 매달리면 마치 달에 가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머무는 이치와 똑같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는 참선명상 속에 기도의 목적인 지혜와 해탈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스님의 설명은 이어진다. "육바라밀이라는 반야바라밀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수반 되듯이, 참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취되



**〈법화삼매참의〉 모본 삼아 한글 편역**
**'참 나' 만나는 기도 수행 비결 담겨져**
**'구원실성' '회삼귀일' 등이 핵심 사상**

기 때문에 기도가 이미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흔히 말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착하는 꼴이 되죠. 밥을 먹어 배 부르면, 밥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계속 신앙이라는 밥에만 매여 있어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신앙심을 북돋아 주는 방편일 뿐, 참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 성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생은 원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원력이라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중생에 다가가는 방편으로 기도라는 이름을 썼다고 보면 되죠. 기도는 이성적인 성취는 가능해도 감성적인 성취가 힘들어 지혜를 얻기 위해선 내면 고찰 과정인 참선 명상이 필요하죠." 진정한 종교에는 기적이 따른다. 이 기적이란 다름 아닌 자신의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삶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려는 간절함이 종교를 접하는 계기를 만들고, 그 종교적 믿음이 간절한 기도의 힘을 통해 자신에게 내재된 무한능력의 에너지를 발현시켜 삶의 질곡과 장애를 이겨내게 된다.

이런 기도는 영적인 힘을 얻게 한다. 불치병이나 불가능한 일 등이 치유되고 성취되는 기적들이 바로 기도 영험으로, 이를 이루려면 제일 먼저 자신부터 믿어야 한다. 이 '나를 믿는' 마음에 기도 성취 여부가 달려 있으며, 이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내 안의 나', 즉 '참나'를 만나게 된다. 우리 몸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또는 삶의 장애에 부딪혀 도무지 뜻대로 일이 안 풀릴 때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참나'를 만나야 한다. 업장소멸과 운명을 바꾸려면 오로지 이 '참나'를 만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이 소멸되어 자기정화가 이뤄지면, 성격과 기질이 바뀌고, 성격과 기질이 바뀌면 팔자와 운명도 달라지니 원하는 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없다. 업이 소멸되면 팔자가 바뀐 새로운 운명이 저절로 열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려 평안해지고 행복한 삶이 열린다. 그 업장을 녹이고 '참나'를 만나는 기도수행법이 바로 경전의 왕, 법화경(法華經)의 〈법화삼매참법〉이다.

'기도는 기도를 안 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중생은 오온(五蘊: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즉 육근(六根: 안·이·비·설·신·의)의 무상함을 알지 못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욕구를 절대 다스리지 못하므로 우선 기도의 단계에 맞춰 오온을 정화시켜 나가야 한다. 마음이 지어내는 온갖 망상들에 현혹되어 끌려 다니게 되므로, 나 자신을 믿는 것이 불교이고 나의 안에 부처가 들어있다 이르는 것이다. 오온은 윤회의 근본이라 오온이 청정하지 않으면 오온개공(五蘊皆空)이 일어날 수 없다. 오온은 모든 심리의 근원이기에 육근 참회를 통해 정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법화삼매참법〉 기도경을 읽다 보면 모든 고통이 육근으로 인해 일어났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놀랄만한 참회의 눈물이 쏟아지며 '1차 정화'가 일어난다.

이런 정화과정을 현대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 하는데, 자아가 위협받으면 자신을 보호하는 무의식적 방법을 이른다. 눈물을 쏟아냄으로써 스스로를 이해하고 아픔의 고통서 벗어나게 한다. 자신이 얼마나 미망에 빠져 조건지어진 대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 '1차 환골탈퇴'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참회의 눈물로 '1차 정화'가 일어나면 곧이어 놀라운 현몽(現夢)을 꾸게 되고,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며 '탁!'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는 '지혜의 소리'로, 이때 비로소 부처님을 친견하고 불교 수호천신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윤회론의 입장서 뿌린 대로 거두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 이를 통해 불교가 경이로울 만큼 과학적이고, 모든 학문의 원천이자 완성임도 알아차리게 된다. 모든 것이 내 탓임을 알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것을 믿고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경전을 독송하면 100일 기도 후에는 저절로 습성이 바뀔 수 있다. 업력에 따라 조건 지어진 습성이 바뀌게 되면 운명도 바뀌므로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 효력이 발휘된다.

기도경의 진수인 〈법화삼매참법〉 기도 영험한 힘은 그 어떤 기도보다 경이롭고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병고액난 등 각종 장애를 극복하여 소망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 말씀이 잘 구성돼 있고, 불보살님과 천지신명의 위신력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각산 스님은 "자신에게 내재된 영적 능력을 믿으며 〈법화삼매참법〉의 기도 수행에 임하면 근기에 따라 슬기로운 이는 삼칠일 이내에 깨우치며, 업장이 두터운 사람도 삼칠일까지는 운명을 개척하고 인생을 바꾸는 공부의 기틀이 잡힐 것이며, 또한 틀림없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입어 해탈열반을 이룰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각산 스님은 "일이 잘 안 풀려 장애에 부딪혀 고통 받거나, 뭔가 새로운 뜻과 일을 이루려는 분은 천여 년의 비법을 간직한 본 〈법화삼매참법〉 기도 수행을 둘도 없는 기회로 삼아, 꼭 '참나'를 찾는 참선명상의 체험과 더불어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시길 합장 올린다."고 밝힌다.

▲저자 **천태대사**는?

천태종 개조(開祖)인 중국(陳나라 말~隋나라 초)의 고승, 천태지의(538~597) 대사는 18세에 출가해 남악혜사(南嶽慧思) 대사 문하에서 지관법문(止觀法門), 삼론(三論), 달마선(達磨禪) 등 북방계의 교리를 계승했고, 법화삼매(法華三昧)로 대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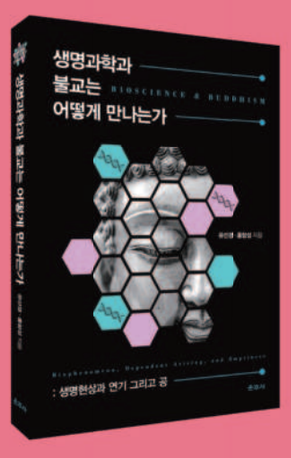
575년 이후에는 천태산에 머물며 천태교학을 확립했고, 수양제의 국사에 올랐다.

말년에는 고향 형주로 낙향해 옥천사를 건립해 천태 3대부인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을 강설하며 선법을 펼치다 천태산으로 은퇴해 597년, 60세에 적멸에 들었다.

▲역자 **각산 스님**은?

저명한 명상대가로, 한국명상총협회 협회장, 한국참선지도자협회장, 세계명상대전 조직위원장, DMZ 세계평화명상 조직위원장 등을 맡았다. 세계명상의 풍부한 수행경험과 탁월한 지도로 불교명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명상 포교'의 획기적 기치를 한국불교·명상계에 제시한다. 세계 명상수행승으로서 쌓아온 국제적 명상 네트워크로, 한국 초유의 세계적 규모의 컨벤션 국제명상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해인사 보광큰스님을 은사로 해인사 강원에서 불교학을 수학한 후, 미얀마 고승 파욱 사야도와 세계적 명상스승 아잔 브람 선사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태국·미얀마의 밀림과 세계 도처의 국제명상센터, 송광사·범어사·통도사 등에서 20여 년 동안 수행하고 견문을 넓혔다. 참선 명상강의 시청률 1위 등, 명상강의 돌풍을 일으킨 명강사 선승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명상입문서 멈춤의 여행〉, 아잔 브람의 〈시끄러운 원숭이 잠재우기〉 〈성난 물소 놓아주기〉 〈슬프고 웃긴 사진관〉 등이 있다.

불교를 통해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생명현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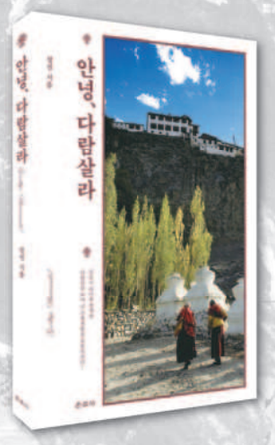


생명과학과 불교는 어떻게 만나는가

본질주의에 입각한 서구의 생명과학은 생명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불교의 연기와 공의 관점만이 현대 생명과학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유선경, 홍창성 지음/국판 무선/336쪽/값 15,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전법, ‘불교 스피치’로 자신 있게”

인터뷰 **이현정** 불교 스피치 전문가 (58 · 前 BBS 아나운서)

## 〈불교 커뮤니케이션–금강경서 본 부처님 스피치〉 출간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색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
**말없던 아이 BBS 아나운서 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다문화 ‘레인보우합창단’ 창단**
**시대에 맞는 전법과 설법 연구**

“부처님 법을 단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해보자는 것이 불교에서의 스피치다. 대상은 불자와 스님이다. 불자는 ‘나’라는 울타리에서 ‘우리’, ‘공동체’로 일어서야 하고 스님은 시대정신에 맞는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

BBS 아나운서를 거쳐 ‘스피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정(58)이 〈불교 커뮤니케이션-금강경에서 본 부처님 스피치〉를 출간하고 ‘불교 스피치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다.

책은 불교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으로, ‘포교스피치 + 설법스피치’가 핵심이다.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전법의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한다. 저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은 시대가 요구하는 전법과 포교에 대한 모색으로, 저자는 그것을 ‘불교 스피치’라고 말한다. 불교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설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평생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설법하셨습니다. 대중마다 형편과 근기에 어울리는 ‘스피치’를 하신 것이죠.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대중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그 진리는 소용없는 것이죠. 이번 책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처님처럼 전법(스피치)하자는 것입니다.”

저자 이현정은 불교색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할아버지는 큰스님으로 불렸던 선지식이었고, 아버지는 응용 불교학자였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랬을까. 어린 이현정에게 불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교우관계에서도 자신이 ‘불교’ 속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당시 이현정의 친구들은 대부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신교와 가톨릭계 중 ·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현정에게 불교는 불편한 일이기도 했다. 그렇게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했던 어린 이현정은 말이 없는 아이로 자랐다. 말보다는 생각이 훨씬 많았다. 어린 소녀에게 남들과 다른 환경은 숙제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불편함으로 이현정은 불교 속에 늘 있을 수 있었다. 늘 번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늘 불교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늘 생각하다보니 그 속에 있을 수 있었다. 주변이 타종교 일색이었던 학창시절에서도 이현정은 불교동아리 ‘룸비니’에서 살았다. 그리고 개신교 대학교에 다니게 된 이현정은 학업의 일부인 예배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불교와의 거리를 더욱 좁혔다. 이현정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불자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이현정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이 절에 다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절에 다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자신 있게 ‘불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나?”

말보다는 생각이 많았던 아이,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아이, 그야말로 ‘스피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소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이현정. 그 아이는 어떻게 스피치 전문가가 되었으며, 불교와 늘 불편했던 그 아이는 어떻게 ‘불교 스피치’ 전문가가 되었을까.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부처님과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엔 부처님을 떠올리고 아쉬운 소리만 했죠. 그렇게 부처님께 아쉬운 소리하면서 부처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막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인해 알았던 부처님 말고 진짜 부처님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현정은 부처님과 가까워졌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려준 부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린 부처님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기로 한다. 이현정은 1989년 BBS에 아나운서 공채 1기로 입사한다. 말이 없던 소녀가 아나운서가 된 것이다. 그녀는 사회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불교 속으로 또 한 번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현정의 화두가 자라기 시작했다. ‘다문화운동’과 ‘전법’이었다. 모두 커뮤니케이션을 화두로 하는 것들이었다. 시작은 ‘스피치’라고 생각했다. 말할 줄 몰랐던 아이는 이제 말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현정 씨는 2018년부터 조계종 교육원 승려인증교육 설법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다.

2007년 BBS를 나온 이현정은 아나운서 생활을 통해 얻게 된 것들을 회향한다. 그것이 ‘스피치’다. 그녀는 자신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하는 법,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연구하고 대중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나운서 시절 품었던 다문화운동을 시작한다. 우리 사회에서 삐걱거리고 겉돌고 있는 다문화의 문제는 언젠가 우리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었다. 삐걱거리고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였다. 그녀는 우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살폈다. 충분히 이 땅에 정착할 수 있고, 정착해야 하는 아이들이 사회의 무관심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아이들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이현정은 그 아이들의 뒤쳐진 학업을 도왔고 아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사)한국다문화센터를 설립하고 최초의 다문화가정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을 만들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불교를 풍성하게 하자는 서원이 생겼어요. 불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 포교와 불심 그리고 새로운 변화 등에서 갈증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전국을 누비며 강의를 해오던 이현정은 우연히 불교 단체에서 스피치 강의를 하게 된다. 그 때 다시 이현정은 또 한 번 깨닫는다. 불교야말로 자신의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현정은 오늘날까지의 자신이 ‘불교’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을 있게 한 불교를 위해 무엇인가 회향하고 싶었다. 종교가 걱정되는 이 시절에 불교는 어떻게 이 시대를 품을 것인가. 그 좋은 설법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현정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보다 많은 대중이 부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랐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전법과 포교의 문제가 이현정에게 다시 큰 주제로 다가왔다. 이현정의 ‘불교 스피치’는 그렇게 탄생했다.

“우리 스스로 불자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불교스피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단 한 마디의 법이라도 분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스피치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스피치입니다. 점점 소통과 멀어지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처님의 화법입니다.”

이현정은 오늘도 그 옛날의 부처님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화법을 닮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국을 누비며 부처님의 화법을 전하고 있다.



**이현정**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미술학 석사,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불교포교 커뮤니케이션), 동국대학교 정치학 박사(다문화 정책)를 받았다. 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를 지냈고, BBS 불교방송 공채 1기 아나운서, KBS와 EBS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다문화 M-TV 자문위원이다. (사)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를 지냈고,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다문화연구소장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디지털대학에서 스피치 강의, 교육원의 승려인증 교육 설법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 〈다문화교안〉〈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있다〉〈성공하는 스피치 돈버는 스피치〉 등이 있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검색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등간격 : 규격참조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고추구 12E 인지구 26E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법당용 12E 외곽용 26E ISO9001 ISO1400 연등승하강 장치기술(신형)
안전인증 ISO 9001 인증기업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 여성불자 위한 러시아 유일 사원

## 부랴트 공화국 슌곤 사원… 달라이라마 권유로

점점 불자가 늘어나는 러시아에서 여성불자들만을 위한 사찰이 눈길을 끈다. 2월 24일 해외 불교전문 매체인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러시아 울란우데에 있는 유일한 여성 수행자 전용 사찰인 '슌곤 다르잘링 다찬' 사원을 특별 보도했다.

러시아 동부 부랴트 공화국의 수도, 울란우데에 소재한 '슌곤 다르잘링 다찬' 사원은 러시아 유일의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사찰이다. 부랴트 공화국의 여성불자 대표인 다리마 삼부예나에 따르면 1992년 부랴트 공화국을 처음 방문한 달라이라마가 "부랴트 주민들의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기 위한 불교의 여성 중심지를 건설하라"고 권유한데서 여성 수행자들의 사원 건립을 서원했다.

1995년 부랴트 정부와 불자들의 지원으로 울란우데에 착공을 시작한 사원은 3년 뒤 먼저 작은 법당급인 두간(dugan) 사원으로 시작했다. 여성들을 위한 법당이 열렸다는 이야기는 많은 여성불자들이 모이는 계기가 됐다. 1999년엔 이곳에 모인 일부 여성불자들이 부랴트의 출가승단을 이끄는 옐로 린포체를 법주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슌곤 다르잘링 사원에서 예불을 드리는 여성 수행자들. 사진출처=러시아 스마트뉴스

이러한 활동에 고무되어 마침내 2000년 7월 1일, '흥성하는 여성 승원'이라는 뜻의 '슌곤 다르잘링 다찬'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개원했다. 전통적으로 사원에 '다찬'이라는 이름이 붙는 곳은 강원과 강사가 상주하는 승가대학급 사찰을 말한다.

현재 슌곤 다르잘링 사원에서 예불은 사원 외부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 수행자들이 집전한다. 사원 측은 "사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가정의 보호자이자 사회적 평화의 보호자인 여성들의 영적 활동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불자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들을 위해 열려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인골로 만든 티베트 법구 특별전

## 대영박물관 "청정 · 부정 없는 공양의 상징"

영국 대영박물관이 인골로 만든 티베트 밀교 법구를 특별전시한다고 밝혀 화제다. 지난 2월 23일 영국 유력지 '가디언'은 대영박물관에서 인골로 만든 티베트 밀교의 다양한 장엄구와 법구들이 전시된다고 전했다.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유물들은 두 개의 두개골을 맞대어 만든 북인 다마루(Damaru), 대퇴골로 만든 나팔 캉링(Kangling), 두개골로 만든 의식용 잔인 카팔라(Kapala)와 인간의 뼈를 조각해 만든 장엄용 예복인 루갠(Ru gyan) 등의 밀교법구들이다.

전시회 담당 임마 라보스 큐레이터는 "이러한 유물들은 밀교수행이 어떻게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준비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상징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죽음을 긍정한다는 데에서 죽음을 허무주의와 부정으로 보는 서양의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베트의 인골 법구들은 불교에서 죽음을 명상하는 백골관과 무상관이 밀교적으로 발전한 결과로 보고 있다. 티베트 불교의 인간 유해 사용을 연구하는 아이샤 푸엔테스 박사는 "근대 서양 선교회들의 악의적인 기술로 인해 인골을 사용한 법구와 의례들이 악마숭배와 사악한 주술이라는 오명을 안아왔다. 그러나 고도로 발달한 밀교 수행에서 인간의 유해는 청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지 않는 공양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두 개의 두개골을 맞대어 만든 북 다마루(Damaru). 사진출처=가디언

실제 인골법구를 위한 인골은 살아생전 청정하게 계율을 지킨 수행자나, 덕이 높은 고승의 유골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또 일부 수행자들은 사후 자신의 몸을 법구로 만들어 줄 것을 유언 하는 경우도 있었다.

푸엔테스 박사는 "티베트 불교가 강조한 죽음과 무상의 중요성이 대중에 알려지고, 밀교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삶의 마무리' 절에서 배워요

## 일본 사찰서 '종활' 교육 프로그램 늘어나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에서 '종활(終活)'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란 뜻의 종활은 사망에서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망라한다. 한편 이러한 종활을 사찰에서 배우는 모임이 생겨 화제다. 2월 21일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사찰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종활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오사카 야오시에 소재한 일련종 혼쇼지(本照寺). 이곳에선 유언과 관련한 체크리스트 '유언백서'에 대한 강좌를 열고 있다. 참석하는 연령대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참가자들은 먼저 본당을 견학한 후 주지스님의 지도에 따라 유언백서를 작성한다.

강좌를 기획한 주지 미타무라 에이슈 스님은 "전대 주지스님이 돌연사를 한 것을 계기로 종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지난해 아내와 함께 유언백서를 설명하는 강사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죽은 이의 마지막 말로 생각해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그리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언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남기는 가장 현실적인 문장"이라고 설명했다.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유언백서 작성은 사뭇 진지했다. 병으로 입원할 경우의 자산관리와 연명치료의 희망여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 남은 디지털 유품의 처리는 물론, 반려동물의 위탁소 등 가족에게 전하고 싶지만 쉽게 간과하는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낸다. 여기에 스님의 세세한 설명과 충고가 더해진다.

**30~70대 다양한 연령대 참가**
**스님 지도에 따라 유언서 작성**
**세세하게 체크리스트 적어가며**
**죽음에 대해 편하게 접근 가능**

유언백서 작성이 끝나자 이번엔 에이슈 스님의 강의와 설명이 이어진다. 소개하는 내용은 장례식에서 행해지는 시식과 시다림, 죽은 후의 천도재나 묘지 선택, 기제사 등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의례다. 스님은 "사찰이기에 그 어떤 강사보다 자신 있게, 정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사찰이탈이 진행되면서 젊은 가장들이 집안 대대로 인연 지어온 사찰이나 종파를 모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에이슈 스님은 "실제 시다림 의식 중에 '대대로 해오던 의례가 아니다'며 친족들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사찰에서 가르치는 종활이 다시금 사찰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활카페에서 강의를 듣는 참가자들.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한편 게임을 통해 종활을 안내하는 사찰도 있다. 오사카시에 소재한 정토종 오덴인(應典院)에선 매월 1회 '사찰 종활카페'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차나 커피를 마시며 종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종활카페에서 진행하는 '혹시나 게임'은 이곳의 주요 활동 중 하나다.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 쓰인 카드를 무작위로 뽑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다. 게임 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선 처음 참가했다는 40대 남성이 "어두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밝은 분위기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후기를 남겼다.

게임을 진행하는 쿠마가와 사와코 종활강사는 "사찰은 본래 사생관을 말하는 장소다. 보통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만, 모두 이곳에서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종활카페의 장점을 말했다. 카페를 기획한 아키타 코겐 주지스님은 "종활상담이야말로 본래 사찰의 역할이다. 종활은 지금까지 포교를 중심으로 한 사찰과 사회와의 관계성이 아닌 새로운 연결고리가 된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日 젊은 여성들, 불교에 심취하다

**사찰 내 좌선 · 사경체험에**
**20~30대 여성참가자 늘어**
**불교문화관련 유행이 배경**

최근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불상을 좋아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불상을 넘어 불교 전반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2월 20일 일본의 '야후 뉴스' '일간 겐다이' 등은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30대 여성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사회에 최근 등장한 신조어 '어라운드 서티(around thirty)'란 30대에 가까운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뜻한다. 아직 완전한 사회인으로 서지는 못했지만 결혼이나 취직 등의 현실문제에 직면한 세대를 이르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한편 이 세대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이 불상이나 불교문화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일간 겐다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매스미디어나 SNS 등을 통해 유행을 끌고 있는 주인(朱印) 수집이나 불상관람 등에 이끌려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부분으로 접한 불교가 점차 내면적인 문화로 옮겨가는 추세인 것으로 일간 겐다이는 분석했다.



불교에 심취한 일본의 청년 여성들. 사진출처=야후뉴스

이러한 경향으로 최근 사찰에서 운영하는 좌선체험이나 사경체험 등의 프로그램에는 젊은 여성의 참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닌 직접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뷰에 응한 30대 초반의 여성은 "기본적으론 무교다. 그러나 불상을 좋아해서 사찰을 찾던 중 우연히 〈반야심경〉을 해설한 책을 읽게 됐다. 반야심경을 보고 마음속 고민이나 불안이 진정됐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응원가와 같았다"며 "종교로서의 불교는 진입장벽이 높지만, 자신을 되돌아보는 콘텐츠로써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20대 후반 여성은 "기존의 종교라는 이미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교를 알고서 스스로의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독신으로 살다보면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째서?'라는 식의 물음에 봉착하고 만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불교에서 찾았다"고 말했다.

'일간 겐다이'는 이러한 경향과 인터뷰 등을 종합해 "자기 자신의 본질 내지는 삶의 방향성을 찾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스스로의 답을 찾으라고 가르치는 불교는 가장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것이 "불교에서 가르지는 '내안의 부처'를 찾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 한국 불복장 진면목, 미국에 전하다

## 불복장작법보존회 2월 22일
## 美 스미소니언博서 시연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2월 22일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지하1층 로비에서 '불복장 시연회 및 관람객의 소통'을 열고 불복장작법 의식을 재연했다.

한국불교만의 전통 의식인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미국 현지에서 재연됐다. 한국불교 문화 우수성을 해외에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경암, 이하 보존회)는 2월 22일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 지하1층 로비에서 '불복장 시연회 및 관람객의 소통(A Korean Buddist Dedication Ceremony)'을 개최하고 불복장작법 의식을 재연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불복장 작법'은 탑의 내부에 사리 등을 봉안하듯이 불상 · 불화 등을 조성해 모시기 전에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와 관련한 물목(物目)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불복장작법의식은 사단법인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장 경암 스님을 비롯해 무관 · 성오 · 도성 · 정각 스님 등에 의해 재연됐다. 700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의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시연회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과 현장 분위기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관 · 성오 · 경암 스님 등 시연**
**'한국의 불상'展 일환으로 열려**
**"韓불복장 의식 경험해" 찬사도**
**불복장 주제 학술심포지엄 진행**

이번 불복장작법 시연은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 박물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열리고 있는 '한국의 불상(Sacred Dedication: A Korean Buddhist Masterpiece)' 특별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13세기 고려시대 관음보살상과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경전과 직물, 곡물 등 복장물 72점이 전시되고 있다. 불상과 복장물이 함께 해외 박물관에 선보이는 첫 사례로 전시는 3월 22일까지 열린다.

시연회를 기획한 카스 윌슨 큐레이터는 "해외에서 처음 거행된 불복장작법 의식은 한국불교 의식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에게 700년 전부터 행해진 한국불교만의 불복장 의식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시연회에 앞서 2월 21일에는 '한국의 불교조각과 복장물 문화'를 주제로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했다.

# 부여 무량사 발견 불상들 보물 지정

## 문화재청 2월 27일 공고
## 석탑 보수과정서 발견돼
## 고려~조선 초 조성 추정
## "조각 기법 우수해" 평가



보물 제2060호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의 모습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에서 발견된 불상 4구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안에서 발견된 고려~조선 초기 불상 4구를 비롯해 북장식 가야도기 1건, 조선시대 지도인 관북여지도를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보물 제2060호로 지정된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무량사 오층석탑에 봉안됐던 금동보살좌상 1구와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 3구로서, 1971년 8월 오층석탑 해체 수리 과정에서 2층과 1층 탑신에서 각각 발견됐다. 금동보살좌상은 고려 시대로 조성시기가 추정되며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의 조성시기는 조선시대로 추정된다. 금동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음보살좌상, 지장보살좌상으로 구성됐다.

2층 탑신(塔身)에서 발견된 금동보살좌상은 발견지가 분명한 고려 전기 보살상으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자료가 부족한 고려 전 · 중기 불교조각사 규명에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1층 탑신에서 발견된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조선 초기의 뚜렷한 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어 이 시기 탑내 불상 봉안(奉安) 신앙 및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지금까지 발견된 탑 봉안 아미타여래삼존상 중 구성과 도상이 가장 완전하고, 규모도 크며 상태도 양호하다.

문화재청은 "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 출토 금동불상 일괄'은 조성 배경을 알려 줄 기록과 명문이 없으나 발견지가 분명하고 조형적으로도 조각기법이 우수하다"면서 "조성 당시 불교 신앙 형태의 일면을 확인 할 수 있어 역사 · 학술 · 예술적 의미가 커 보물 지정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함께 보물로 지정된 보물 제2059호 '부산 복천동 11호분 출토 도기 거북장식 원통형 기대 및 단경호'는 가야시대 고분 중에서 도굴 당하지 않은 복천동 11호분의 석실 서남쪽에서 출토됐다. 일반적으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도기는 훼손된 사례가 많으나 이번에 지정된 도기는 한 쌍의 기대(器臺, 그릇받침)와 항아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발굴돼 이 시대 도기의 제작수준을 확인하는 기준이 된다.

보물 제2061호 '관북여지도'는 조선 시대 관북(關北) 지방인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총 13면에 걸쳐 그린 지도집이다. 지리적 내용과 표현 방식 등으로 1738년(영조 14년)~1753년(영조 31년) 사이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전북 문화유산 조사 · 보존 상호 협력"

## 국립완주문화재硏 · 전라북도, 학술연구 협약

조사와 보존관리에 문화재청과 전라북도가 힘을 모은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오춘영)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2월 25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에서 전라북도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 등에 상호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2월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과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용이해졌으며,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연구와 보존관리에도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가능해지면서 적극행정의 기초가 구축될 수 있게 됐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으로 전라북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지역 문화유산 발굴 조사와 최신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불교, 실천적 이해' 살핀다

## 불교학연구회 3월 21일 봄논문발표회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오는 3월 21일 능인대학원대학 본관 2층 세미나실에서 '불교의 실천적 이해'를 주제로 봄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식이십론〉 타심지 난제의 인지과학적 해명(정현주, 전남대)' △'대승불교윤리의 공리주의적 접근(문유정, 동국대)' △'근대의 불교 문화인 일엽과 홍일(경완스님, 고려대)' △'명상 중 나타나는 도전적인 특이경험에 관한 연구(김수연, 능인대학원대학교)'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안환기(서울대), 조인숙(동국대), 류제동(서강대), 박병기(한국교원대), 김경집(진각대학), 김종진(동국대), 이수련(서울불교대학원대학), 하현주(서울대) 등이 참여한다. 한편,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중급과정 (6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특수작법(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⑤ 약사여래도

# “모든 病苦 치유”… 약사여래에 기원





돈황 막고굴 322굴에 그려진 ‘약사여래도’와 돈황 막고굴 제417굴 서벽 천정 하부에 그려진 ‘약사경변상도’의 모습. 약사여래는 모든 중생의 병고를 치유해주는 여래이다.

천연두신이 부처님의 품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는 귀자모신이 되었듯이, 현재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역시 불자들이 불심으로 슬기롭게 떨쳐내기를 바라며 약사여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는 주변에 아픈 병자가 있거나 가족의 무병장수하기를 바랄 때 약사여래(藥師如來, bhaiṣajya-guru, 의왕불, 대의왕불, 의왕선서, 약사유리광불, 약사유리광여래 등)가 계시는 약사전(藥師殿)을 찾아 기도를 드린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서 약사부처님께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의 무병장수와 가족들의 건강을 빌었다.

약사여래는 동방 정유리 세계의 교주로서 12가지의 뜻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는 보살행을 실천하신 부처님이시다. 약사여래의 12가지 큰 서원(大願)은 다음과 같다.

① 광명조요(光明照曜): 내 몸과 남의 몸에 광명이 가득하게 하려는 원

② 신여유리(身如瑠璃): 깨달음을 얻었을 때 자신의 몸을 유리와 같이 청정하게 하려는 원

③ 수용무진(受用無盡): 중생으로 하여금 욕망에 만족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려는 원

④ 대승안립(大乘安立): 다른 도를 따르는 중생들을 대승으로 이끌어 안락하게 하려는 원

⑤ 삼취구정(三聚具定):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깨끗한 업을 지어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갖추게 하려는 원

⑥ 제근구족(諸根具足): 불구인 중생들이 모두 완전한 신체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원

⑦ 중환실제(衆患悉除): 몸과 마음이 안락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려는 원

⑧ 전녀성남(轉女成男): 모든 여인으로 하여금 모두 남자가 되게 하려는 원

⑨ 안립정견(安立正見): 마귀, 외도의 나쁜 소견을 없애고 부처님의 바른 지혜로 포섭하려는 원

⑩ 계박해탈(繫縛解脫): 나쁜 왕이나 강도 등의 고난으로부터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원

⑪ 기근안락(饑饉安樂): 일체중생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려는 원

⑫ 의복엄구(衣服嚴具): 가난하여 의복이 없는 이에게 훌륭한 옷을 갖게 하려는 원

속인인 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여덟 번째 원을 제외한 나머지 열 한 개의 원은 현세의 이익과 구복을 설하고 있어,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바램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

약사여래와 관련된 경전으로는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현존하고 있으며, 네 종류의 한역본이 있다. 제일 먼저 한역된 동진(東晋, 317~420) 백시이밀다라(帛尸梨密多羅)가 번역한 〈관정발제과죄생사득도경〉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사경〉으로 언급되는 〈약사여래본원경(藥師如來本願經)〉은 수 달마급다(達磨笈多)가 616년에 동경의 상림원(上林園)에서 번역한 것으로 줄여서 〈약사본원경〉이라 하고 별칭으로 〈약사여래본원공덕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당나라 때 현장(玄奘)이 번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이 있다. 또한 당나라 때 의정(義淨)이 번역한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두 권은 경전의 앞부분에 여섯 부처를 언급하고, 뒷부분에 약사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칠불약사경〉이라고도 한다.

이들 경전들의 공통된 내용은 약사여래의 본원과 그 공덕을 이야기한 것으로, 약사여래를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그 명호를 외우면 12대원을 달성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복을 받게 된다고 설한다.

이처럼 산스크리트어 원전이 현전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약사여래를 그린 불화나 조각한 상을 찾을 수 없다. 현존 가장 이른 약사여래의 모습은 수대(隋代, 581~619)에 돈황(敦煌) 막고굴(莫高窟)의 302굴과 305굴에 그려진 벽화로서, 왼손에 약이 담긴 그릇을 상징하는 약함을 들고 있다. 이후 초당(初唐, 618~712)시기 돈황 막고굴 322굴 입상의 약사여래는 왼손에는 약함을 들고 오른손에는 육환의 석장을 들고 있다. 대략 7세기 서역의 관문인 돈황지역에 도해된 약사여래는 약함과 석장을 들고 있으며, 8세기에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둥근 구슬인 보주(寶珠)를 들고 서 있는 약사여래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8세기 이후에는 입상의 약사여래와 함께 좌상의 약사여래도 많이 조성되었으며, 좌상의 약사여래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나 시무외인(施無畏印), 설법인(說法印)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중생 질병 치료하는 약사여래**
**12가지 대원엔 대비심이 담겨**
**돈황석굴 약사여래 도상 ‘最古’**
**韓 8세기부터 관련 성보 확인**
**코로나19, 佛心으로 극복 하길**

한국의 경우는 8세기 통일신라시기의 약사여래가 가장 이른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약사금동불과 굴불사지의 석조약사여래처럼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 경우와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출토의 금동사리함(863년, 경문왕3)의 약사여래처럼 약함이 지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현존하는 유물로 보면 7~8세기 한국과 중국의 약사여래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이른 시기 서역부터 한국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약사여래의 공통점은 약함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약함은 여러 부처님들 중에서 약사여래를 구분하는 뚜렷한 도상적 특징이 될 것이며,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게 식별하는 수단이 된다.

약사여래관련 어떤 경전에서도 약사여래가 약함을 지물로 갖고 계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으나, 현존하는 불화나 조각을 통해서 볼 때 약사여래관련 경전이 한역되었을 초기부터 약함이 지물로 정해져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본다.

약사여래에 대한 민간의 신앙이나 세속화에 관해서 살펴보면 당 황실은 안사의 난(755년) 이후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2~3일에 걸쳐서 약사도량을 열었다고 한다. 법회 때 기악과 경전으로 약사여래를 찬하며, 서역에서 유입되었다는 일곱 개의 수레바퀴가 쌓인 모양의 윤등(輪燈)에 등불을 밝혔다는 기록이 〈송고승전(宋高僧傳)〉에 있다. 이후 음력 정월 대보름 상원절(上元節) 행사 때에 민간에서도 수레바퀴 모양의 등륜(혹은 윤등)에 불을 밝히고 구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민간의 풍습은 약사여래신앙의 유행과 더불어 불교 행사가 일반에 전해져 세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돈황 벽화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수대 말기에 그려진 돈황 막고굴 417굴의 서벽 벽화는 〈약사여래염송의궤(藥師如來念誦儀軌)〉의 “만약 어떤 사람이 죄가 많거나 부녀자가 화를 복으로 바꾸길 원하면 가르침에 의거하여, 약사상 1구를 만들고, 약사경 1권을 베껴쓰며, 번 49개를 만들고, 7층 등을 수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상 앞에 안치한다”는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약사여래께 윤등과 번을 공양하는 벽화가 돈황 막고굴에서 다수 확인되어, 약사여래의 유행이 제를 행하는 절차와 법칙이 기록된 의궤까지 만들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중국과 한국의 정월 대보름에 행해지는 쥐불놀이는 소나무나 쑥방망이에 불을 붙여 빙빙돌리다가 논두렁과 밭두렁에 불을 질러서 마른 풀을 태우는 놀이이다. 쥐불놀이는 농경사회에서 쥐를 쫓아내고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 등 모든 잡균들을 태워 없애며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행사이다. 수당대에 상월절에 〈약사경〉을 외우며 수레바퀴 모양의 윤등으로 정월 대보름행사를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액을 멸하고 복을 구하는 쥐불놀이의 원형이 아니었을까하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약사여래본원경〉에 “기원하고 공양하면 모든 원이 다 이루어진다. 병든 사람이 살기를 구하면 죽을 지경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왕은 재난을 물리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이것을 믿으면 온갖 괴이한 신의 부적이 소멸되고, 아홉 가지의 횡사를 일으키려는 묘한 술법이 없어졌다”라는 구절을 읊어본다. 약사부처님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가 처한 질병을 소멸해 주시길 아주 간절히 바란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대행선 및 불교 사상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자들에게 학술지원을 하기 위해 불교학술 진흥사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불교학의 발전을 위하여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daehaeng.org
▶ **E-mail** : ds7788@hanmaum.org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제3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공모기간** : **3월1일 ~ 3월 31일**
- **선정분야** : 대 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단, 심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논문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한마음연구』 투고 논문 접수**

- **분 야** : 대행선 또는 불교 관련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시 기** : 연중 어느 때나 투고 가능
- **자 격**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자, 제방의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전문가
- **원고료** : 400만원 (『한마음연구』게재 확정시)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제2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공모분야** : 대행선, 불교교학, 불교사학, 응용불교, 불교문화 등 불교관련 모든 분야
- **응모자격** : 대학원 재학 또는 수료자로서 불교학 또는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 작성 내지 연구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 **공모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 공모신청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

# ‘합의’·‘화합’ 불교 민주주의 핵심



윤성식의
## 붓다의 정치학

### ⑤ 불교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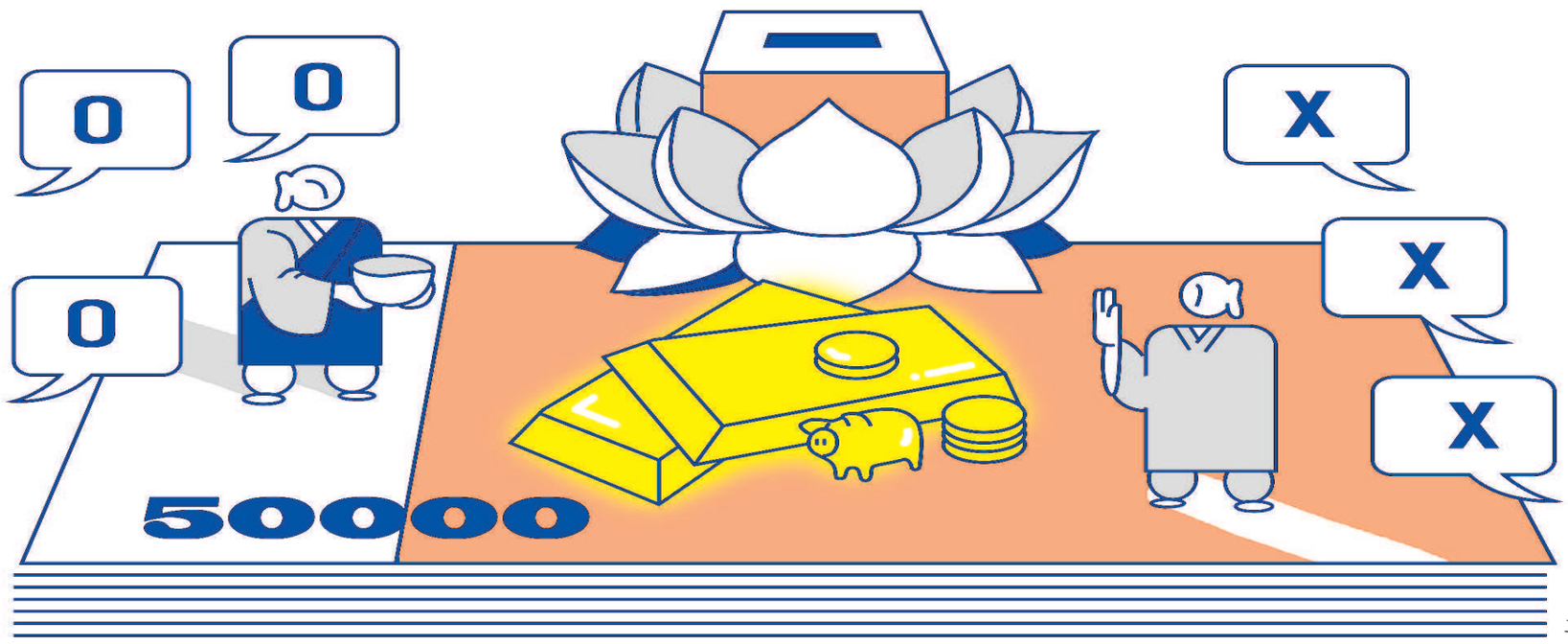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은 출가자가 돈을 받아서도 안되고 만져서도 안되고 심지어 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도 안된다고 엄격하게 규율하셨다. 여기서 돈이란 금, 은 같은 보석도 포함한다. 부처님은 재가자의 경우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지만 출가자에게는 이처럼 매우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셨다. 돈, 금, 은 등은 재물 중에서도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금과 은은 화폐나 마찬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에 대한 금지조항이라 볼 수 있다. 화폐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극대화된다. 다른 재물과 다르다.

재가자는 출가자에게 음식, 옷 등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므로 출가자는 돈이나 금, 은 등이 필요하지 않다. 경전에는 돈, 금, 은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 출가자가 주워서는 안되고 ‘정인’이라는 재가자를 시켜 줍도록 설해져 있다. 정인은 사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종무소 직원과 유사하다. 정인은 돈, 금, 은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출가자는 돈, 금, 은 등을 만져서도 받아서도 안된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100년쯤 지났을 때까지도 교단은 하나였다. 교단 내에는 진보적 생각을 가진 출가자와 보수적 생각을 가진 출가자가 있었다. 특히 바이살리라는 대도시에서 활동했던 진보적인 출가자 집단은 불교가 새로운 사조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진보적인 출가자와 보수적인 출가자의 견해는 필연적으로 충돌하였고 10개의 조항에 관한 다툼이 생겼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다툼이 금과 은에 대한 다툼이었다. 바이살리는 상공업이 발달한 당시의 대도시 중 하나였으므로 특히 돈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는 환경 하에 있었다. 진보적인 출가자는 부처님 뜻을 어기고 금과 은을 직접 받더라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의식(금은정)을 한 뒤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재가자로 부터 금과 은을 받았다.

보수적인 출가자는 금과 은을 받는 행위는 물에 씻건 씻지 않건 부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교단의 의견은 둘로 갈리게 되며 논란이 된 10개 조항 하나 하나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회합이 결성된다. 그 결과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9개 조항에서 부처님 뜻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 즉 금은정 조항도 부처님 뜻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진보적인 출가자들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회합을 열어 10개 조항이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 짓는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출가자는 주로 나이 든 수행자였으며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출가자는 주로 젊은 수행자였다고 한다.

불교는 원래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았던 인간이 사유재산이 생긴 후 다툼이 생겼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재물이야 말로 인간 다툼의 근원인지도 모른다. 부처님 사후 하나였던 불교교단이 둘로 분열되고 다시 수많은 지파로 분열된 사건의 단초도 금은정이라는 재물에 관련된 조항 때문이었다. 물론 북전 기록에 의하면 근본 분열의 이유가 아라한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남전 기록에 의하면 근본 분열의 가장 큰 쟁점은 금은정이라는 조항이었다. 재물이야 말로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해치고 형제 자매 사이를 멀게 하며 친구를 배반하게 만든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재물에 관해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경전은 생로병사의 고통 중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고 설하니 재물이야 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야기한다. 자유롭게 살던 인간이 스스로 제약을 가하면서 왕을 세운 것도 재물 때문이요, 불교 교단이 둘로 분열된 것도 재물 때문이니 경제와 정치는 역시 분리될 수 없는가보다.

근본 분열의 과정에서 교단은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일종의 투표를 했다. 말하자면 다수결에 의해 10개 조항에 대한 개별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수결에 승복하지 못한 진보적 출가자가 대중부를 결성하고 나머지 보수적 출가자는 상좌부를 결성하여 교단은 부처님 사후 100년만에 둘로 분열된다.

원래 승가의 의사결정은 갈마(羯磨)에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화합이라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이다. 승가의 중요 사항에 대해 부처님은 독재를 행사하지 않으셨고 민주적 토론과정을 거친 합의에 따랐다. 물론 부처님의 리더십에 의해 교단이 운영되었지만 실질적인 수많은 내용은 승가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했다. 오늘날 한국 사찰에서 볼 수 있는 대중공사는 바로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연유한다.

만장일치는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과정이다. 사소한 문제나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가 쉽지만 중요한 문제, 이익이 많이 걸린 문제는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만장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제도를 구축했다. 어떻게 해서든 만장일치가 되도록 하려는 부처님의 노심초사가 엿보이는 제도이다.

만장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을 따르거나 다수의견이 소수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소수가 끝내 고집을 부릴 때 다수가 양보하지 않으면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다. 만약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가 된다. 소수가 다수를 따르지 않거나 다수가 소수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각각 조금씩 양보해야 만장일치가 된다. 이렇게 힘든 만장일치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재물에 대한 금지 조항**
**교단 초기분열 초래해**
**만장일치 어려움 반증**

승가의 의사결정은 전원 참석, 만장 일치가 원칙이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 다수결에 의해 표결하도록 허용되었다. 그러나 승가의 분열이 예상되는 안건은 표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금은정 논쟁은 표결해서는 안되는 안건이었다. 하지만 결국 표결로 갔다. 금은정에 관한 논쟁에서 만장일치를 도출했다면 교단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장일치는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과정이지만 화합을 위해서는 최고의 수단이다. 투표를 하면 대결이나 마찬가지다. 회의 석상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논쟁하다가 끝내 투표에 이르게 되면 전운이 가득하다. 투표 결과가 발표될 때 참석자의 표정을 보라. 이기는 사람의 의기양양과 기쁨, 지는 사람의 좌절과 분노가 교차하면서 결론 아닌 결론이 내려진다. 결론은 분열이라는 씨앗을 안고 임시봉합될 뿐이다. 다음 대결에서도 승리하자는 다짐과 다음 대결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가 이미 다가올 싸움을 예견한다.

‘사분율(四分律)’에 보면 부처님은 ‘만일 대중이 화합하거든 꼭 같이 나누어 주고, 화합하지 않거든 반만 주고, 더 화합하지 않거든 3분의 1만 주라.’라고 규정하셨다. 화합을 얼마나 중시하셨는지 알 수 있다. 불교의 연기법은 우리 모두가 독자적인 실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에 의해 임시로 존재한다고 가르친다. 구태여 불교가 자비의 종교라는 설명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연기법에 의해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동식물, 곤충, 벌레, 심지어 세상의 물, 땅, 불, 바람과도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화합은 우리 모두의 이익이며 갈등은 우리 모두의 손해다. 우리는 불자가 아니어도 상생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한다. 상생이란 화합과 공존을 의미하며 합의야 말로 상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장일치는 획일적인 결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의견이 대화를 거치면서 하나로 모아질 때 만장일치가 실현된다. 처음부터 항상 의견이 하나라면 획일적 사고와 집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에는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에 도달한다면 획일적 사고도 아니고 집단 사고도 아니다.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바람직한 정치에 대한 내용이 가득하다. 불교의 정치사상이 오늘날 정치학 교과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구태여 부처님의 정치사상을 논할 이득이 없다. 그렇다고 불교의 정치사상이 100% 정치학 교과서의 내용과 정반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같음에서 다름의 이익을 보고 다름에서 같음의 이익을 본다. 정치학 교과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불교의 정치사상에서 우리는 불교의 보편적 지혜를 보고 정치학 교과서의 내용과 차별화가 되는 불교의 정치사상에서 우리는 차별화된 지혜를 본다.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를 재확인한다. 불교의 정치사상을 통해서 불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지혜를 확인한다.

어떤 정치학 교과서도 자유, 평등, 민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도 자유, 평등, 민주를 이야기하고 자본주의 국가도 자유, 평등, 민주를 이야기한다. 선진국도 자유, 평등, 민주를 이야기하며 후진국도 자유, 평등, 민주를 부르짖는다. 독재자가 내세우는 가치도 자유, 평등, 민주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겉이 아닌 실질은 제 각각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불교도 자유, 평등, 민주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불교 민주주의는 합의 민주주의, 화합 민주주의다. 승자는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며, 끝내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민주주의가 불교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다.

현실정치에서 만장일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3 찬성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만장일치는 아니다. 온 나라가 선거가 되면 분열의 몸살을 앓는다.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쪽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그 여파가 크다. 그렇다고 현 상황에서 과거의 승가처럼 만장일치로 리더를 선출할 수는 없다. 불교의 합의 민주주의, 화합 민주주의를 어떻게 현실에 지혜롭게 적용할 것인가는 뒤에 다시 논의해야할 주제다. 〈고려대 명예교수〉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 | |
|---|---|
| 모집과정 | · 법사과정(1년) |
| 모집학반 | · 출강반 · 통신반 |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br>·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br>·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br>·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br>·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백문이 불여일견!

초청하면 지역별 방문! 견본으로 염불을 해보면 내 귀에 내 염불이 지극히 편안해서 염불 테크닉이 잘 들어감으로 공양간 보살들이 스님! 염불이 와이리 좋아졌노?! 테프 소리보다 훨씬 낫다. 갑자기 왠일이고? 몰려오면 사찰 중흥이 확실함으로 기존 법당 시설가의 절반가에시설 장기할부 가능

방문시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2천여 시설 명단제공

본품은 본사의 개발품으로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 글은 법적증서!

장점 : 1. 초간편시설 2. 앰프다루기 1초 3. 고장없음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LG오디오 1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완벽시설,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방생용, 각종 마이크 구경)

▣ 마이크소리 구경 조건으로 신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 Sound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잊혀진 임제 법맥 선지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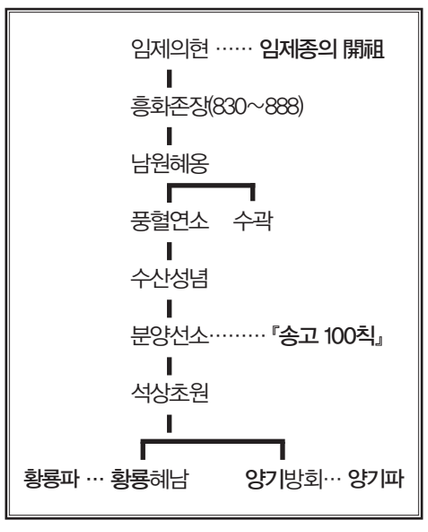


정운 스님의
##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 ⑤ 임제종 전개 및 특질

당나라 말기부터 오대, 북송 대에 이르는 동안에도 선종은 면면히 발달하고 있었다. 이때는 5가 가운데 운문종 · 임제종 · 조동종의 선풍만이 전하였다. 선종사에서 임제종을 거론할 때는 임제종의 분파에서 나온 황룡파와 양기파, 즉 임제에서 시대를 거슬러 뛰어서 황룡과 양기만을 거론한다. 하지만 임제의 법을 받은 흥화존장~석상초원까지의 선풍을 생략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계종은 임제종 문하의 흐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황룡파와 양기파가 형성되기 이전까지의 선사들을 보자.




**唐末~北宋 선종 면면히 발달돼**
**석상초원 등 선풍 생략 아쉬움**
**황룡 · 양기파 형성 전 선사 중요**




#### 풍혈연소 선사

임제의 문하 풍혈연소(風穴延沼, 896~973)는 어려서부터 출가할 뜻이 있어 어육이나 오신채를 금했다고 한다. 〈법화현의(法華玄義)〉에 깊은 뜻을 두고, 천태 교관인 지관정혜(止觀定慧)를 닦았다. 이후 남원혜옹(南院慧顒, 생몰미상)의 문하에 들어가 원두 소임을 맡았다. 하루는 남원이 물었다.

"남방에서는 이 몽둥이를 어떻게 헤아리느냐?"

"굉장하게 헤아립니다. 이곳의 몽둥이는 어떻게 헤아립니까?"

"방(棒) 아래, 무생법인이 기연을 만나고도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연소는 스승의 이 말에 크게 대오했다. 연소는 사형사제인 수곽(守廓)을 만나서도 공부에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연소도 스승이 되어 선풍을 떨쳤다.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 아닌 게 있더냐?"

"현묘한 말은 깨우치기 어려우니, 곧 가르쳐 주십시오."

"바닷가 모래톱에 집을 짓고 사니, 부(扶桑, 해가 떠오르는 곳)에 가장 먼저 해가 든다."

"밝은 달이 공중에 걸려 있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늘에서 빨리 돌아가는 것을 좇지 말고, 땅속에 묻힌 것을 물어라."

"옛 곡조에는 음률이 없으니, 어떻게 화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나무로 만든 닭이 야반삼경에 울고, 띠풀로 엮은 개가 새벽에 짖는다."

연소는 당시 유학과 불교학에 뛰어나 "그의 법석은 천하에 제일이고, 멀리서부터 학자가 찾아왔다"라고 한다. 법을 이을 제자가 없어 연소는 "총명한 사람은 많아도 자신의 본성을 구하는 이는 드물다"라는 한탄을 하였다. 마침 이 무렵, 수산 성념이 찾아왔다.

#### 수산성념 선사

수산성념(首山省念, 926~993)은 출가해 두타행을 하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3000번 독송했다. 당시 그를 '념법화(念法華)'라 하였다. 수산이 연소 문하에 머물러 있는데, 어느 날 연소가 대성통곡을 하였다. 수산이 연유를 물었더니, '임제의 법맥을 잇지 못하고 여기서 끊어지는 게 슬퍼서 그러네'라고 하였다. 성념이 '그러면 저라도 잇겠습니다'라고 하자, 연소가 '자네는 〈법화경〉에 걸려 있네'라고 하였다. 성념이 경전 독송을 끊고, 수행에 전념하자, 다음 공안을 수산에게 주었다.

**"세존의 불설의 설(不說之說)은 어떤 것인가?"**

**"가섭의 불문의 문(不聞之聞)은 어떤 것인가?"**

**이후 수산은 스승의 법을 받아 남방 일대에 크게 선풍을 진작했다. 수산의 선풍을 알 수 있는 몇 공안을 보기로 하자.**

**수산이 죽비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며 말했다. "그대들이 만약 이를 죽비라고 불러도 어긋나고, 죽비라고 부르지 않아도 어긋날 것이다. 그대들은 얼른 말해 보라. 이를 무어라 하겠는가."**

– 〈무문관〉 43칙 '수산죽비(首山竹篦)'

〈무문관〉의 저자 무문혜개(無門慧開, 1183~1260)는 "죽비를 죽비라 불러도 안되고 부르지 않아도 안되는 이치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공안을 배촉관(背觸關)이라고 한다. 다음, 선사의 공안을 보자.

**어떤 사람이 선사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며느리를 나귀 등에 태우고, 시어머니가 고삐를 잡고 길을 간다."**

– 〈종용록〉 65칙 '수산신부(首山新婦)'

위 내용은 부처로 상징되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말하는데, 선은 격외(格外)의 도리임을 의미한다. 가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나귀에 둘이 탈 수도 있으며, 나귀에 아무도 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정해진 법은 없다. 〈금강경〉에서 "무상정등각이라고 할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고 하듯 일정한 법은 있을 수 없다. '부처가 ○○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듯이 어떤 행이든 언어이든 삶의 어느 언저리에서든 무심(無心)한 도리가 중요하다.

#### 분양선소

분양선소(汾陽善昭, 947~1024)는 14세에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여 계를 받았다. 불법을 구하고자 선지식을 찾아 발초참풍하였다. 최후에 수산성념에게 귀의해 깨달음을 얻어 그의 법을 이었다. '코끼리 가는 곳에 여우의 발자취 끊어진다(象王行處絶狐踪)'는 말에 크게 깨달았다. 시호는 무덕선사(無德禪師)이다.

송대의 송고문학에서 공안으로 발전되었고, 다시 공안에서 화두가 나와 간화선이 발전되었다. 즉 송고문학에서 공안선이 성립되었고, 이 공안을 수행방법으로 전환한 것이 간화선이다. 송고문학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송고(頌古) 100칙이 있는데, 선소가 최초로 〈100칙 송고〉를 만들었다. 〈100칙 송고〉는 수많은 공안을 시와 게송으로 해석한 것이다.

선소는 속세의 번거로움을 싫어해 은둔해 살아서인지, 선소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다. 후대에 선소의 선풍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후대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종고(1089~1163)가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때 종고를 따르는 스님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

"사람이 살면서 신념 때문에 겪어야 할 불행이라면 구차하게 면하려거나 슬퍼할 필요 없다. 만약 선사께서 평생을 아녀자처럼 아랫목에 앉아서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다. 대혜 선사께서는 옛 성인이 가신 길을 간 것뿐이다. 그대들은 무엇을 그리 슬퍼하는가. 옛날 자명(慈明) · 낭야(瑯琊) · 대우(大愚) 세 스님이 분양선소를 친견하기 위해 길을 떠난 적이 있다. 그때 마침 서북 지역에서 전쟁으로 길이 막히자, 스님들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병사들 대열에 끼여 선소를 친견하러 갔다."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내용을 통해 당시 선소의 인물됨이나 선사로서의 위상을 알 수 있다.

#### 석상초원

석상초원(石霜楚圓, 986~1039)은 광서(廣西) 장족(壯族) 자치구(自治區) 전주(全州) 출신으로 속성은 이 씨이다. 자명(慈明) 초원이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유생이었으나 22세에 출가했다. 출가 이후 만행을 하며 스승을 찾던 중 분양선소를 참문했다. 초원이 선소 문하에서 2년을 지냈으나, 아무런 가르침이 없었다. 하루는 초원이 스승에게 말했다.

"스님, 저는 스님 문하에서 2년을 보냈으나, 깨달음에 관한 것은 조금도 배우지 못하고 세속의 잡다한 일만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수행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승이 초원의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말했다. "이 못된 놈아! 너 같은 놈이 내 문하에 들어오다니…."

대뜸 선소가 주장자로 두들겨 패자, 초원이 살려 달라고 외치며 도망갔다. 초원이 여기서 깨닫고 나서 말했다. "임제의 도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나왔구나!"

초원은 스승을 따라 경도(京都)에서 7년을 보낸 뒤, 여러 곳을 거쳐 강서성(江西省) 의춘(宜春) 남원사에서 3년을 주석했다. 이 때 초원을 알현한 제자가 양기 방회이다. 그 후 초원은 호남성의 도오사 · 석상사 · 복엄사 등에서 방장으로 주석하며 선풍을 드날렸다. 복엄사에서는 황룡파의 개산조인 황룡 혜남을 제자로 두었다. 5가 7종 가운데 임제종계의 초원선사로부터 황룡파와 양기파가 분파되었으니, 초원의 선종사적 위치가 실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북송 인종(1022~1063, 재위) 황제의 사위인 이준욱이 병이 들자, 초원에게 뵙기를 청한다는 전갈이 왔다. 초원은 부마가 살고 있는 경도로 달려가 부마를 위로하며 말했다.

"본래 걸림이 없는 것이요, 어디서나 모나고 둥글든 임의(任意)에 맡기십시오."

부마가 말했다. "밤이 되니 몹시 피곤하군요."

"부처 없는 곳으로 부처가 되어 가십시오." 초원의 선사의 마지막 법어에 부마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초원이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흥화사로 돌아가는데, 인종 황제가 관선(官船)을 타고 가도록 하사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초원이 갑자기 중풍을 맞았다. "시자야! 내가 아무래도 풍에 걸린 것 같다."

스승이 풍을 맞아 입이 비뚤어진 것을 보고, 제자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아이쿠! 이 일을 어쩌나?! 스님께서 평생 동안 걸핏하면 부처를 욕하고 조사를 꾸짖더니, 이제 그 업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자의 말에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곧 바르게 해서 보여주마."

손으로 입을 어루만지니 비뚤어졌던 입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초원은 사찰로 돌아온 이후 좌선삼매에 들어 다음 해인 1039년에 입적했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 탁마하며 번뇌 없애는 수행도구



박동춘의
##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 ⑤ 군자와 같은 茶 성품

당송(唐宋)의 새로운 다풍(茶風)을 접했던 도당(渡唐) 승려들은 고려시대 차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계층이다. 그들은 송나라를 내왕하며 차에 대한 신정보를 익히고 돌아와 고려 차 문화가 더욱 발전할 토대를 제공했다. 특히 선종오가(五家)인 위앙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성립된 것은 법안종이다. 기존 선가 유풍의 좋고 나쁨을 가려 이를 종합,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법안종은 선종의 바른 가풍을 정립하기 위해 교전(教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법안종의 초조(初祖)는 문익선사(文益禪師)이다. 강서 임천의 승수원에서 교화를 폈다. 그를 흠모하던 남당(南唐)의 왕 이변이 금릉의 보운선원으로 청하여 정혜선사(淨慧禪師)라는 호를 하사하고 그를 청량산으로 모셨는데, 이곳이 문익선사의 필생 교화 도량이 된 연유이다. 법안종이 개창되어 왕성하게 법을 펴던 10세기경은 대개 선종 사원에서 차를 마시며 수행하는 풍토가 이미 정착되었던 시기다. 특히 문익선사의 제자 덕소(德韶), 문수(文遂), 혜거(慧炬) 같은 제자들이 나와 왕후의 존경을 받았는데, 바로 혜거는 고려 승려로, 문익선사의 초기 제자였다. 〈경덕전등록〉에 그에 관한 정보가 자세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는) 고려 도봉산 법안종의 국사이다. 당말 오대 때의 승려인데, 생몰연대는 상세하지 않다. 중국에 와서 법안 문익을 따라 수행하여 득도한 후, 고려의 국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청하므로 마침내 고려로 귀국하였다. 이후 중국의 법안종은 점차 쇠락하여 미미해졌지만, 고려의 법안종은 도리어 흥성하였으니 모두 혜거의 영향 때문이다.(高丽道峰山法眼宗之国师 唐末五代时之僧 生卒年不详 来我国跟随法眼文益修行而得悟 后高丽国主遣使来请 遂回故地 以后我国法眼宗虽渐衰微 而高丽法眼宗却兴盛一时 皆慧炬影响所致)**

윗글에 따르면, 혜거선사의 귀국은 그를 흠모하던 왕이 사신을 보내 돌아오기를 청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왕은 예를 다하여 그를 국사로 모셨으며, 이로부터 고려에 전파된 법안종이 더욱 성행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혜거선사가 들여온 법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광종 때이다. 그러므로 그의 귀국을 종용한 왕은 광종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광종은 고려의 통치 기반을 단단히 구축한 것은 물론 중앙집권화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했고,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광종은 불교 교단 정비를 하는 한편 승정(僧政)을 정비하여 불교를 국가 운영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했으며, 선종을 정비하면서 법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광종이 영면영수(904~975)의 〈종경록〉을 읽고 감동하여 고려의 승려 30여 명에게 법안종을 배우게 했던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따라서 〈경덕전등록〉의 혜거와 관련된 기록은 광종 때 법안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연유를 확인시켜준 자료라 하겠다.

그런데 법안종의 적극 수용이 차 문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안종은 오월 지역을 거점으로 일어난 종파이고, 이곳은 중국 차 문화의 발생지역이다. 그러므로 법안종을 참구(參究)했던 고려 승려들은 법안종 승원에서 일상화된 음다 풍습을 익혀 새로운 제다법이나 탕법에 눈을 뜬 수행승들이었다. 그러기에 이들의 귀국은 법안종 승단에서 습윤한 차를 고려 왕실과 귀족 사회에 퍼트린 문화의 전파자로, 고려의 차 문화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구나 광종은 선대(先代)부터 실시했던 팔관회, 연등회뿐 아니라 무차대회 같은 불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었던 군왕이었다. 그러기에 이 시기는 왕실의 주도하에 더욱 풍성한 차 문화를 형성할 수 있었고, 불교계의 막강한 영향력은 승려들이 차 문화를 주도하는 시대 환경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

**선종 '법안종' 적극 수용한 광종**
**중국 차 문화 국내 유입 배경돼**
**차 한 잔 얻기 위한 수고로움이**
**정성과 집중력 높이는 수행으로**



요묘 벽화 6묘 전실 동벽. 다연으로 차를 가는 모습.

차 문화를 주도했던 승려의 다사(茶事)와 관련된 자료는 주로 고려시대 문인이 남긴 문집과 역사서 등이다. 특히 차에 밝았던 승려와 승원의 모습을 그린 임춘(林椿, 1148~1186)의 '장난삼아 방장 겸 스님에게 쓰다(戲書謙上人方丈)'에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다.

**겸 스님의 준일함은 총림에서도 빼어나(謙公俊逸叢林秀) 신선 같은 꼿꼿한 모습, 맑고 또 여위었네(玉骨巉巉清且瘦). 달마의 가풍은 설두에게 전해져(佛祖家風傳雪竇) 그가 앉은 곳엔 문득 사자후가 들리네(踞地便聞師子吼). 묵언(默言)으로 고요히 선정에 들어(默坐澄心牢閉口) 다시는 공과 유를 말하지 않네(不復談空還說有). 미친 늙은이 방거사가 스스로 알고는(自知龐蘊一狂叟) 가끔 참선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네(往往參禪來稽首). 서당엔 오래도록 금주한 걸 비웃지만(祈笑西堂長禁酒) 나에게 삼매 솜씨로 차 다리는 걸 뽐내는구려(誇我點茶三昧手). 돌솥에서 물 끓는 소리 일어나니(石鼎聲蚯蚓吟) 수액을 만난 객을 누가 구할까(客遭水厄誰能救). 중략**

앞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겸 스님은 선승으로 수행이 뛰어난 수행자인지라 그 모습 또한 신선처럼 깨끗하고 맑았던가 보다. 달마의 참선 수행법은 설두선사(834~905)에게 전해졌으니 바로 설두선사의 영향을 받은 겸 스님이 수행하는 곳에선 사자후가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의 수행의 심지는 고려뿐 아니라 방거사도 알아준 경지였단다. 그런 겸 스님이 임춘에게 내준 차란 삼매의 경지를 나툰 차였다. 물론 겸 스님의 차에 대한 경지는 찻물을 감별하는 능력뿐 아니라 삼비(三沸)로 끓여야 하는 탕변(湯辨)도 체득했을 터이다. 그러므로 겸 스님은 점다삼매(點茶三昧)를 뽐낼 만하다는 희언(戱言)이 아닐까.

그리고 점다(點茶)는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탕법이다. 12세기엔 이미 백차(白茶)를 선호했기에 뇌원차(腦原茶)나 유차(孺茶)를 만들어 즐겼다. 당시 차 한 잔을 얻기 위한 수고로움은 잎 차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먼저 숯불을 피워 약한 불에 차를 구운 후, 나무절구에 차를 넣고 덩어리를 분쇄한다. 이런 과정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천화사에서 놀다가 차를 마시다(遊天和寺飮茶)'에 "녹태전을 대나무 공이로 부수자(一笻穿破綠苔錢) 시냇가에서 졸던 수컷 오리가 놀라 깨었네(驚起溪邊彩鴨眠)"라고 한 것에서 확인된다. 녹태전은 당시 승원에서 마셨던 고급 차의 이름으로, 둥근 돈처럼 생겼다하여 녹태전(錢)이라 한 것인데 단차(團茶)를 말한다.

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단단한 덩이차를 나무절구에 넣은 후, 작은 구멍 사이에 공이를 넣어 나무망치로 친다. 이때 나무망치 소리가 탕탕 울리므로, 시냇가에서 한가히 졸던 수컷 오리가 깜짝 놀라 깬 정황을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읊어낸 것이다. 한편 나무절구에서 분쇄한 차는 다시 차 맷돌(茶磨)이나 다연(茶硏)에 갈아낸 후, 가는 체로 쳐서 미세한 가루를 만든 후에야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 참으로 번거로운 공정을 거치지만 번뇌를 삭힐 향기로운 차 한 잔을 내기 위한 정성과 집중력은 본받을 만하다.

승원에서 차를 다마(茶磨)에 차를 가는 정황을 그린 자료로는 이인로(李仁老, 1152~1220)의 '승원의 차 맷돌(僧院茶磨)'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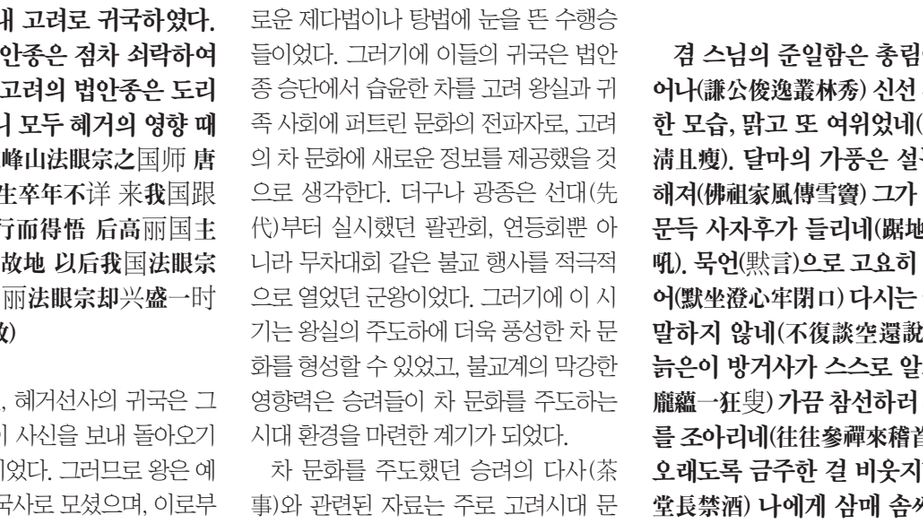
**차 맷돌 천천히 돌아(風輪不管蟻行遲) 월부를 막 돌리자, 옥가루 날리네(月斧初揮玉屑飛). 종래 법희는 진실로 자재한 것(法戱從來眞自在) 맑은 하늘에 우레치고 펄펄 눈이 내리는 듯(晴天雷吼雪霏霏)**

윗글에 의하면 13세기 승원에 손님이 찾아오면 가루차를 대접했던 차 문화의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승원에서 차를 가는 맷돌 소리가 우레가 치는 듯, 지축을 울렸다는 표현도 흥미롭다. 우레가 치듯 맷돌이 돌아가고 맷돌이 돌아갈 때마다 흰 눈이 내리듯, 하얀 찻 가루가 날리던 정취는 상상해 봄직한 풍경이다. 차가 문학적 감수성과 예술로 승화되었던 고려 시대는 귀족이나 불가, 관료 문인들이 이끌었던 시대였다. 그러므로 고려의 지성인이 읊어낸 다시(茶詩)는 차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결이며 문화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들어준 물줄기였다. 더구나 고려의 문인들은 귀한 벗에게 차 맷돌을 보내 맑고 향기로운 차를 즐기며 서로의 향상을 기원했던 여유와 배려가 있었다.

이규보의 '차 맷돌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여(謝人贈茶磨)'에 "돌 쪼아 바퀴 하나 이뤘으니(琢石作孤輪) 돌리는 땐 한쪽 팔만 쓰네(迴旋煩一臂)"라 하였다. 이어 "그대도 차를 마시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보내주었나(子豈不荅飮 投向草堂裏)"라고 했다. 지기(知己)가 나에게 차 맷돌을 보낸 까닭은 "내가 유독 잠 즐기는 걸 알기에 나에게 부쳐 온 것이로구나(知我偏嗜眠 所以見寄耳)"였단다. 그렇다. 차를 마시면 잠을 적게 잔다. 그러기에 벗에게 차 맷돌을 보내 탁마(琢磨)를 독려했던 것. 차의 성품은 군자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 시대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 삼구 경계에 떨어진 허수아비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⑨ 삼구(三句)와 삼요(三要)

법좌에 오르니 어느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 1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삼요(三要)의 도장을 찍으면 붉은 점획이 숨어버리니 주인과 손님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이 제 2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묘해(妙解)가 어찌 무착(無着)의 물음을 용납하리오. 하지만 방편으로는 어찌 번뇌의 흐름을 끊은 근기를 외면하리오."

"어떤 것이 제 3구입니까?"

임제가 말했다.

"무대 위에 노는 꼭두각시를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무대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이니라."

삼구(三句)는 선종에서 선의 요체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온 용어다. 임제뿐만 아니라 여러 선사들이 선(禪) 수행에서 넘어야 할 관문처럼 이 삼구를 제시한 이들이 많았다. 각 선사들이 자신의 종지를 드러내는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1구소식이 으뜸이고 2구는 1구에 못 미치는 경지이고 3구는 아직 선수행의 올바른 길에 들어서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구(句)라는 말은 간화선 수행에서 많이 써온 말로 사구(死句)니 활구(活句)니 하는 말로 쓰다가 1구니 2구니 3구니 하는 말로 쓰게 되었다. 이 밖에도 향상일구(向上一句)라는 말도 특별히 써왔다. 말에 죽은 말이 있고 살아 있는 말이 있다는 것이다. 말이 언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말(死句), 말이 언어적인 개념을 뛰어넘은 것을 활구(活句)라 하였다. 동산수초(洞山守初 · 910~990)선사가 "말 중에 말이 있으면 죽은 말이요, 말 중에 말이 없으면 살아 있는 말"(語中有語 名爲死句 語中無語 名爲活句)"이라 하였다.

어느 스님이 임제에게 3구의 소식을 차례로 물었다. 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으뜸가는 제1의 경지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 말이다.

대답이 삼요(三要)의 도장을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글에 묻은 인주의 붉은 획이 숨어버려 찍혀진 자국이 안 나타난다는 말이다. 주인과 손님, 다시 말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 말 이전, 혹은 한 생각 이전의 소식이 일구라는 것이다. 삼요(三要)란 임제가 학인을 시험할 때 제시해 쓰던 특수용어로 삼현(三玄)과 짝을 이루어 임제의 종지를 선양하던 수단이 되었던 말이다.

제 2구의 대답은 문수보살과 무착선사의 일화를 의지해 말하고 있다. 무착선사가 오대산의 문수보살을 친견하러 갔을 때 오대산 입구에서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일화다.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은 어떤가?"

"말세의 비구들이 계율이나 조금 지키며 삽니다."

"대중들은 얼마나 되는가?"

"혹 3백 명씩, 혹 5백 명씩 모여 삽니다."

무착이 문수에게 물었다.

"이곳에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뒤섞여 있느니라."

"대중들은 얼마나 됩니까?"

"전삼삼후삼삼(前三三後三三)이니라."

문수가 무착에게 묻고 답한 것을 방편으로 무착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비록 문수가 근본지의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후득지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3구의 이야기는 인형극 같은 것을 할 때 뒤에서 숨어 밀었다 당기는 사람에 의해 꼭두각시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3구에 경계에 떨어진 사람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이 삼구의 이야기를 각각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의 경지라고 보기도 하고 1구, 2구를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으로 보기도 한다. 〈조계종 고시원장〉

# 육바라밀 '지혜' 세분한 사바라밀



세상 속 경전읽기

⑨ 대승의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해심밀경(海深密經)〉(5권)은 만법유식(萬法唯識) 사상을 주창한 유가(瑜伽)학파의 근본경전이다. 중국 법상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이 경의 한역으로는 현장(玄奘) 역 이외에 진제(眞諦), 보리유지(菩提流支), 구나발타라의 4가지가 있으며 특히 이 경에 대한 주석서를 신라시대 유식학자인 원측(圓測), 원효(元曉), 경흥(憬興)이 저술하였으나 이 중 유일하게 원측의 〈해심밀경소(疏)〉(10권)가 현존하여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원측의 주석서는 티베트 본으로도 남아 있어 이를 통해 한문본의 결락부분이 보충되고 있다.

〈해심밀경〉 '지바라밀다품 제7(地波羅蜜多品第七)' 서는 보살 십지(十地) 및 불지(佛地)를 다루었고,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이야기가 나온다. 육바라밀을 언급한 내용을 아래에 인용한다. 여기에서 '선정(禪定)' 대신에 '정려(靜慮)'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지혜(智慧)' 대신에 '혜(慧)', '바라밀' 대신에 뜻번역인 '도피안(到彼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은 몇 가지나 있나이까?"

부처님이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이 배워야 할 일이 대략 여섯 가지가 있나니, 이른바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정려(靜慮; 禪定), 혜(慧; 智慧)도피안(到彼岸)이니라." [世尊° 是諸菩薩凡有幾種所應學事° 佛告觀自在菩薩曰° 善男子° 菩薩學事略有六種° 所謂布施持戒忍辱精進靜慮慧到彼岸] 〈解深密經 T0676_.16.0705a04-7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수행법인 실천중도(中道)로서의 팔정도(八正道)나, 대승의 수행법인 육바라밀은 모두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의 근본수행으로 수렴될 수 있다.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는 삼학 중 혜학에 소속되고, 정어, 정업, 정명은 계학에 소속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은 정학에 소속된다. 이때 정정진은 계정혜 삼학 모두에 속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해심밀경〉 '지바라밀다품 제7' 에는 삼학 중 '정학(定學)' 을 '심학(心學)' 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증상(增上)' 을 접두(接頭)한 '증상계학' , '증상심학' , '증상혜학' 으로 표현하였다.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은 증상계학으로, 정려(선정)는 증상정학으로, 혜(지혜)는 증상혜학으로 분류하고, 정진은 계정혜 모두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계학은 복덕의 자량이 되고, 혜학은 지혜의 자량이 되며, 정려(선정)와 정진은 복덕과 지혜 모두의 자량이 된다.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마땅히 알라. 앞의 세 가지[布施, 持戒, 忍辱]는 가장 높은 계학[增上戒學]에 포섭되는 것이며, 정려(靜慮; 禪定) 한 가지는 가장 높은 심학[增上心學; 增上定學]에 포섭되는 것이며, 지혜(智慧)는 가장 높은 혜학[增上慧學]에 포섭되는 것이니라. 그리고 나는 정진이 일체에 두루 적용된다고 설하노라."

육바라밀에 방편(方便), 원(願), 력(力), 지(智)의 사(四)바라밀을 더하면 대승의 십바라밀이 된다. 이들 사바라밀은, 육바라밀 중의 지혜를 세분한 것이고, 육바라밀을 조반(助伴 · 짝으로 돕기)한다. 즉 방편(方便)은 육바라밀 중 보시, 지계, 인욕을 조반하고, 원(願)은 정진을, 력(力)은 선정을, 지(智)는 지혜를 조반한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인연으로 나머지 네 가지 바라밀다를 시설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앞의 여섯 가지 바라밀다와 함께 돕는 짝[助伴]이 되는 까닭이니라." [世尊。何因緣故。施設所餘波羅蜜多。但有四數 佛告觀自在菩薩曰。善男子。由前六種波羅蜜多爲助伴故。] 〈解深密經 T0676_.16.0705b10-13〉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이해의 길 35

# 천태법화, 진흙서 피어난 연꽃

〈天台法華〉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경전에 따라 다양한 종파로 확대되고 교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종파(宗派)는 앞서 살펴본 격의, 교판과 함께 중국불교를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다. 여러 종파 가운데 천태(天台)와 화엄(華嚴)은 철학적인 반면에 정토(淨土)와 선(禪)은 실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천태와 화엄은 중국의 교학불교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며, 두 종파의 성격도 사뭇 다르다. 화엄이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면, 천태는 진흙과도 같은 현실에 시선이 닿아있다. 두 종파 간에 세계관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의로 하는 종파다. 〈법화경〉은 본래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준말인데, 대승불교 초기에 해당되는 50년경부터 150년경 사이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대승경전이다. 이 경전이 설해진 장소는 그 유명한 마가다국 왕사성 부근에 위치한 영취산(靈鷲山)이다. 우리나라 불보사찰인 통도사가 자리한 영취산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경전에 의하면 붓다가 〈법화경〉을 설할 때 마가다국의 왕인 아사세와 대신들뿐만 아니라 1만 3천의 제자와 8만의 보살, 10만이 넘는 괴수(怪獸) 등이 참석한다. 그때 삼천대천세계의 국토가 진동을 하면서 땅이 열리고 무량 천만 억 보살이 허공으로 솟아올랐다고 한다. 현실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다. 학자들은 "〈법화경〉은 인도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인도인의 상상력이 실크로드의 모래바람을 맞고 건너와 중국인의 사유와 만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천태종이다.

〈법화경〉을 우리말로 풀면 '진리(法)의 연꽃(華)' 경전이 된다. 그런데 청정하고 아름다운 백련이 서있는 곳은 다름 아닌 더러운 진흙 밭이다. 진흙은 부조리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세계를 상징한다. 천태종이 응시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 연꽃으로 상징되는 진리의 세계, 부처의 세계는 중생들 삶의 터전인 현실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피어날 수 없다. 비록 모든 것이 공(空)하다고 하지만, 온갖 모순과 악으로 넘쳐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에서 천태종을 확립한 인물은 천태대사라고 불리는 지의(智顗)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왜 천태종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가 17세 되던 554년 조국인 양(梁)나라는 멸망하고 고관을 지냈던 부친마저 죽고 만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낀 그는 이듬해 출가를 한다. 그런데 제2의 조국인 진(陳)나라마저 수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된다. 두 번에 걸친 망국의 경험을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지옥도 이런 지옥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고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천태학이라는 사상의 금자탑을 이루어냈다. 더러운 진흙 밭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낸 셈이다. 이러한 경험은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글자 그대로 한 생각 속에 3천의 세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3천이나 되는 세계에는 극락과 부처도 있지만, 지옥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도 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지옥과 극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 지의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통해 중생의 실존을 자신의 사상 속에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그가 〈법화경〉을 중시했던 이유도 '진리의 꽃(法華)' 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이다.

천태의 입장에서 화엄은 지나치게 순수하기 때문에 지옥과 같은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았다. 지의는 자신이 살았던 혼돈의 시대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천태의 시선이 화엄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모든 것을 불성의 현현(顯現)이라고 보는 화엄의 긍정적 세계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봐도 그렇다. 독재와 야만의 시대에 인생은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 안내

1283호 | 17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악만 볼 뿐
자신의 악은 볼 줄 모르며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선만 볼 뿐 남의 선을 볼 줄 모른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률삼매경》에서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네이버에 위 책이름 또는 작가 '태산선사' '손재찬' '손도사'등을 꼭 한번 검색 • 구입해 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 효보당 108사주 사주비법 완전전수

(포인트"액기스" 위주로 가장쉽게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한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강의해드림)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인생, 인체의병,영가,일년신수,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 미래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 황토장뚜껑 지점모집

- 기후변화에도 장맛을 지켜줌
- 뚜껑을 열지않고 볼수 있습니다
- 과학적 설계 가운데 유리가 부착

**3종류 각 300개씩, 선불 30일후 배송**
**등본, 사진, 이력서, 거래통장 사본**

♣ 치유농장 ♣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문의 043-745-3332

##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 ?

**영통 기도법을 하루에 전수, 스님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 비구 · 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 승려증 발급, 수계증 발급
- 주지 임명장 발급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 인연을 찾습니다

**정토마을을 함께 운영하실 분을 모십니다.**

- 위치 : 경남 창영, 대지 : 453평
- 사찰등기 해드릴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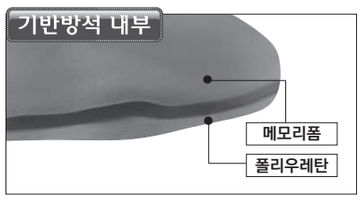
**심우사**
010-3753-7844

세계최초

#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 | |
|---|---|
| 가로 | 45cm |
| 세로 | 32cm |
| 높이(뒷면) | 8cm |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화제 "빨간 속옷"을 입으면 행운이 온다

**"돈이 좋아하고, 따르는 속옷이 있습니다"**

붉은악마(치우천왕)은 2002년도 우리나라 축구를 세계4강에 승리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치우천왕 유래에 따르면 그 옛날 '전염병'이 도질때 우리조상들은 '장승'의 모양으로 마을어귀에 세워 전염병을 막게 하였다. "운이 있는 사람과 운이 없는 사람을 일평생 비교하면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 온 국민이 걱정이다. 좋은 운이 따르는 '치우천왕 빨간 속옷'을 비법으로 꼭 입으시어 나와 내 가족이 나쁜 운을 만나지 않게 되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돈도 들어오게 되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사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치우천왕 빨간속옷 2장 ~~10만원~~ ⇨ 5만원**

Daum 카페에서 치우천왕 정담 을 검색하세요.

**국민은행 324702-04-162923 예금주 : 배정민**
**상담전화 010-4500-8234**

## 도심속 아름다운 절

운영할 비구니 주지스님
비구니 기도스님
사무장, 공양주를
모십니다

010-6892-3999

## 공양주 모십니다.

010-4448-3750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대구, 60세 이상)

010-3524-8930

## 사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중국교포 환영)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4253-9110

##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그곳에 가서 빌면 원하는대로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위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한국지명유래집) 경상편 P.785에 있는 국가 기록 문서입니다. 이 사실을 2019년에 발견하여 우선 컨테이너기도실로 마련하였아오니 누구든지 오셔서 기도 성취 소원의 꿈을 이루십시오.

**기도터 관련 자세한 소개 30쪽 책자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책값은 우편료 포함 만원입니다.**

입금계좌: 우체국 611038-02-004763
농협 352-0943-7979-03 정보석

안내: 010-3557-2773, 010-2093-3385

여의 기도 대성지 도량 건립 발원자 드림

##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수·목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 (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알기쉬운

#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
|---|---|
|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br>◆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br>◆**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br>◆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br>◆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283호 | 18 | 전면광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 삼보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 사찰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외
◎ 매가 : 13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50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매가 : 6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 사찰 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6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위치 : 부산 신평 토지 5천여평
- 주거지역 1천여평 포함
- 가액 : 7억5천(은)3억3천포함

010-9906-3631

##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35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2동(1동은 세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 11억 5천만원

010-3269-1023

##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 도심속 명당 사찰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대지 : 216평
- 주택( 판넬) : 50평
-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주택구조), 조경, 주차완비
- 가액 : 9억 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 부산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지하철 1호선 범일역 입구, 자유도매시장, 평화도매시장
- 귀금속골목 입구(상권최고)
- 법당완비, 에어컨 주방시설 완비, 상담실 별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4만원
- 시설비 는 조금만 받겠습니다.

010-9660-6677

## 별장같은 토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농지500평.건평 30평.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2층에 2층, 약 80평
- 보증금 250만, 월 40만
- 시설비는 보시고 협의
- 16년 포교원 운영중

010-9422-1233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최고요지, 지하철 5분~10분거리
- 뒤에는 산, 앞에는 빌딩 등산로 입구
- 대지 : 100평 사용중, 74평 허가득
- 건물 : 법당30평, 방1, 창고2, 화장실2, 요사채 30평, 방2, 다용도실1, 샤워실1, 창고1
- 가액 : 3억 3천 성업중(가격절충)

010-6565-2042

## 포교원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무료

010-3422-3232

##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5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영상통화 절충

010-8339-5525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5-2 지리산 750고지
- 미륵암 8백평 내 독채3채, 가을에 곶감공장, 텃밭. 농사 지으실 분
- 지리산 인연 있으면 함께 합시다
- 가액 : 보증금 300만 / 월세 20만
- 권리금(상담후 결정)

011-759-0183

##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천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3천 5백만원

010-8424-0042

##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가흥 2동 8통1반 472번지
- 대지40평, 방4개, 주방, 욕실
- 1년 월세 : 2백만원
- 가액 : 3천 5백만원 (건물 두채 : 가격조정가능)

010-9370-7513

## 좋은사찰 안내

- 위치 : 서울도심
- 대지 200평, 법당 50평, 요사채 100평, 별채 50평
- 가액 : 25억 (대출가능)
- 신도다수
- 건강문제로 양도코저 함

02-992-0032

##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법당 30평, 요사채, 공양실
- 권리금 4천 8백만원
- 월 20만원

010-7289-0059

##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 대지 100평
- 법당 20평(2층)
- 1층 28평, 방3개, 화장실
- 가액 : 2억 3천만원

019-8611- 756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불교조계종대학림** 02)511-1080

**불교조계종(총무원)** Tel 02)511-2026~7 | Fax 02)511-2028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 현대불교

##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사명 | 지사장 | 연락처 |
|---|---|---|
| 대구지사 | 손문철 | M 010-2813-8008 |
| 부산지사 | 이도경 | M 010-5640-8883 |
| 광주전남지사 | 양행선 | M 010-2629-1508 |
| 전북지사 | 조동제 | M 010-8642-7733 |
| 경남지사 | 성낙두 | M 010-3860-7008 |
| 영주지국 | 박영애 | M 010-9373-3778 |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종회의원 보궐, 진화 · 가섭 스님

### 직능대표선출위, 2월 24일 만장일치



진화 스님



가섭 스님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직능대표에 입후보한 前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과 前포교부장 가섭 스님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원행)는 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회의원 직능대표 보궐 선출의 건을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당선된 두 스님의 임기는 2월 27일부터다.

진화 스님은 보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과 1986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광주 증심사 주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을 역임했다.

가섭 스님은 태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94년 사미계를, 2001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안양암과 청용암 주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조계종 교육원 연수국장 · 교육국장,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 금강대 신임 총장에 정용덕 교수

### 제8대 총장, 2월 24일부터 4년간



천태종립 금강대 신임 총장에 정용덕(71 · 사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학교법인 금강대(이사장 도용, 천태종 종정)는 2월 13일 대학 대회의실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제8대 총장으로 정용덕 서울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임기는 2월 24일부터 4년간이다. 앞서 금강대는 신임 총장 초빙공고를 내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송희연 제7대 총장 후임을 물색해왔다.

정용덕 총장은 서울대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립대 대학원과 서던캘리포니아대 대학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연구교수, 독일 베를린자유대 객원교수,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로 활동했다.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사학과학협의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총신대 관선이사장을 맡았다.

윤호섭 기자

# "불교-사회 소통창구 국회의원 역할 중요"

### Interview

### 민주당 비례대표 출마 정우식 후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재생에너지경제분야 전문가**
**대불청 회장 등 교계 경력도**
**"불교 현안 해결에 역량 기여"**

"과거 1990년대만 해도 국회의원 중 절반이 불자였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틀어 가장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3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불교와 사회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인재도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발전과 불교중흥에 힘쓸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불교계에서 대한불교청년회장과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 정 부회장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부회장,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정 부회장은 2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국가 발전의 핵심 키워드를 '재생에너지경제'로 꼽은 뒤 자연과 뗄 수 없는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세계는 지금 온실가스로 기후위기를 초래한 탄소배출경제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경제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재생에너지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재생에너지경제로 탈바꿈하지 못한 나라는 세계경제의 주변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 부회장의 이 같은 전망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환경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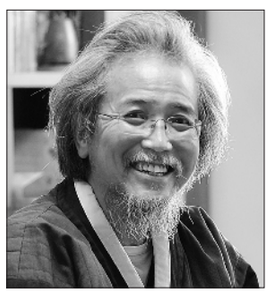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각 나라의 산업경쟁력이 재생에너지경제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개인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 2위, 국가는 7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3020은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정 부회장은 스스로를 국가의 경제와 세계적인 기후 · 환경 극복을 위한 '조력자'로 칭했다. 앞장서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기보다는 함께 발맞춰 더 큰 울림을 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종교보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연과 함께하는 불교계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교계는 자연공원법 개정을 비롯해 다양한 법과 제도에 얽매여 있습니다. 가장 핵심 당사자인 불교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관람료 논란 해소에 힘써야 하지만, 노력이 부족해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불자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염병 극복 지혜 율장에"

### 전재성 빠알리성전협회장 〈비나야삐따까〉 출간해



부처님 당시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지침을 담은 빠알리 율장이 우리말로 처음 완역됐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은 2월 25일 〈비나야삐따까〉 출간을 알렸다.

〈비나야삐따까〉는 부처님 재세 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남긴 해법과 이후 승단 내 규율을 담은 율장(律藏)이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최초로, 완역으로는 영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비나야삐따까〉는 총 2부 6권으로 이뤄져 있다. 다발부는 1권 '마하박가(大品)', 2권 '쭐라박가(小品)'로 구성됐다. 마하박가는 부처님 정각부터 열반까지의 주요한 전법 가르침과 자자 포살, 구족계 등의 규칙을 설한 것이다.

쭐라박가는 승단 회의를 뜻하는 갈마의 절차와 방식, 오백결집과 100년 후 승단 분열시의 문제를 다룬다. 2부인 분별부는 3권 '빅쿠비방가', 4권 '빅쿠니비방가(比丘尼分別)', 5권 '빠리바라(附隨)', 6권 '빠띠목카(波羅提木叉)'로 이뤄져 있다.

빅쿠비방가는 비구가 지켜야 할 227계율이 생겨나게 된 당시 실제 사건의 인연담이며, 빅쿠니비방가는 비구니 311계율이 생겨난 인연담과 학습계율 및 의무계율이 설해져 있다.

전재성 회장은 "율장은 불교사상의 중심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불교가 케케묵은 신화가 아닌 2500년 전 말씀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잘 정리된 논리와 언어사유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율장에는 인도사회에 있었던 폭력, 전쟁, 사기, 성문제 등 현대사회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전 회장은 "코로나19와 비슷한 전염병 발생 시 부처님이 어떻게 승단에 대처하도록 했는지에 대한 기록 등도 남아있다. 위생과 방역을 위해 승단에 규범을 담아 향후 질병에 대한 예방도 당부한 기록"이라며 "계율에서 품행이 바른 수행승을 찬하고, 비행의 위계승을 분개하고 비난하는 것은 역사적인 공동체적 삶에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큰 가르침을 준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번 율장 번역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7년간 매일 정진해왔다. 이번 비나야삐따까는 양장본으로 총 3584쪽에 6권의 율장과 7327개의 주석이 수록됐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빠알리어 한글표기법 및 부처님 탄생과 가계도, 승단의 옷에 대한 고찰, 의무 계율의 부파별 조항수 대조표 등도 함께 실렸다.

노덕현 기자

## 동행 상임이사에 일화 스님

### 원행 스님, 2월 26일 임명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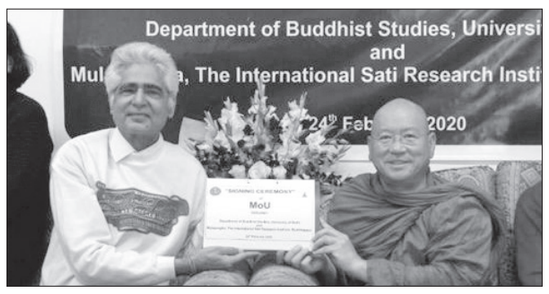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일화 스님에게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임명장을 전달했다. 일화 스님은 청학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조계총림선원, 덕숭총림선원, 화엄사 선등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황련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인도 물라상가-델리대 MOU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통도사 청하문도회 인도법인 '물라상가'는 2월 24일 인도 델리대와 MOU를 체결, 앞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과 교수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학교 내에 명상센터를 건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사띠 수행 지도와 명상강좌가 열리며, 세미나 · 워크숍 등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윤호섭 기자

## 남원 경찰서 경승 위촉식

### 운봉 · 승묵 · 원명 · 성환 스님 등 4명




전북 남원경찰서(서장 함현배)는 2월 20일 2층 소회의실 초롱마루에서 선원사 운봉 스님, 실상사 승묵 스님, 대복사 원명 스님, 극락암 성환 스님을 신규 경승위원으로 위촉했다. 함현배 서장은 "경승위원의 안전한 남원 만들기 동참을 환영하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남원이 되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인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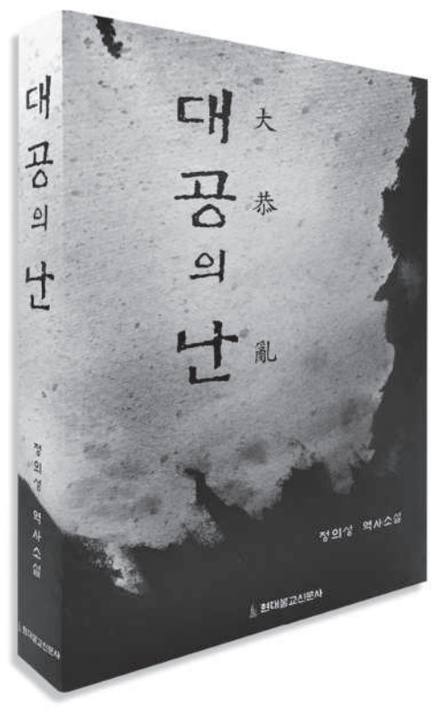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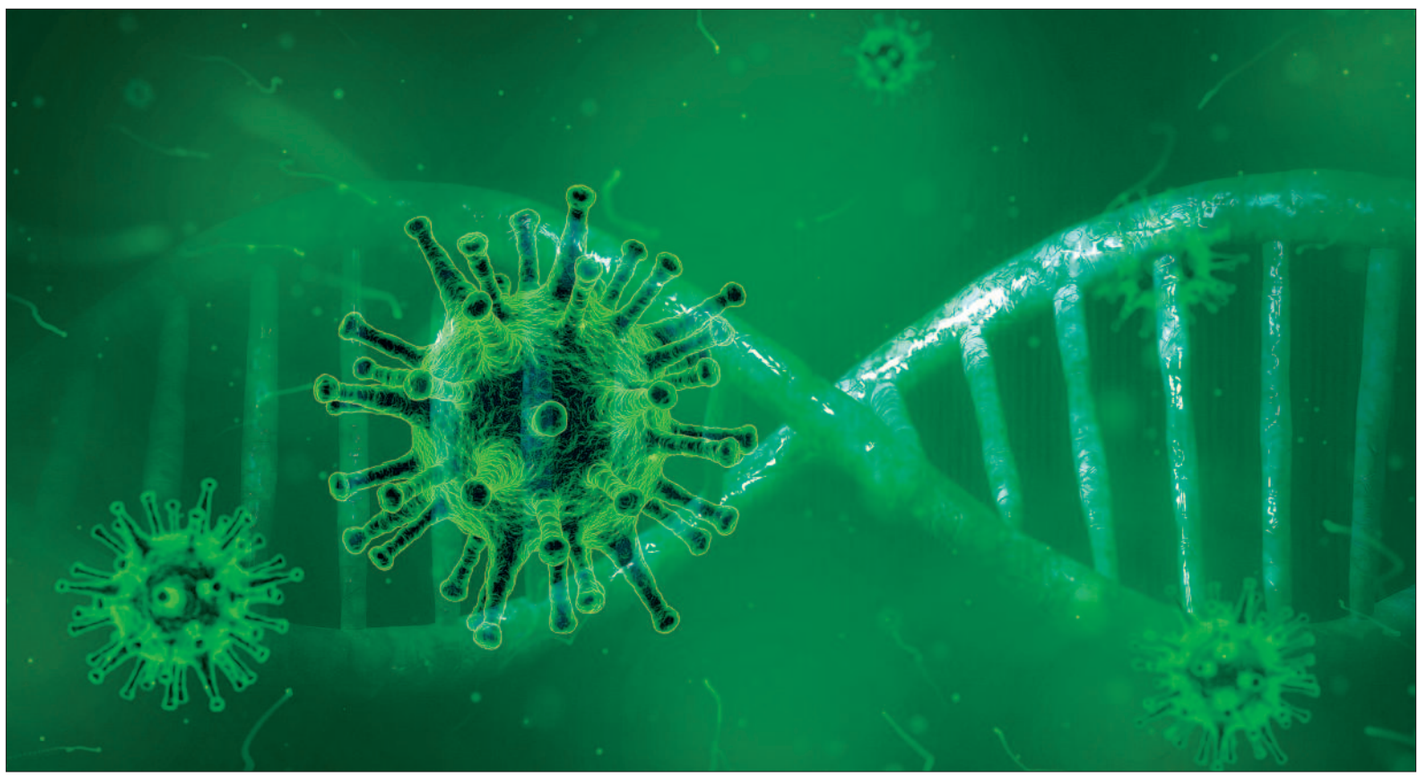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 코로나, 명상으로 막는다





최훈동의
## 마음 사용 설명서

### ⑤ 명상과 공포극복

요즈음 코로나 사태로 온 나라가 긴장 상태군요.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할 때입니다. 명상의 의학적 효과는 면역력을 키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부분 스트레스 호르몬(코티솔 등)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반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T임파구가 증가되는 등 면역력을 증가시키지요. 이런 상황에서 명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그냥 눈을 뜨셨다구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었다구요. 눈뜨기 전 꿈을 생각하고 있었나요. 꿈꾸다가 깼나요?

예. 모두 좋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에 살펴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잠에서 깸, 호흡을 살펴봄, 몸을 살펴봄(상쾌함 또는 찌부둥함), 기분을 느껴 봄(기분이 좋음 좋지 않음 기분이 좋지도 싫지도 않음), 눈을 뜸, 일어나야겠다는 마음(의도)과 함께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남,

일어나는 과정도 옆으로 돌아 손을 짚음, 몸을 일으킴, 일어나 앉음,

일어서서 걸을 때도 걸으려 함, 한 발 한 발 바닥에 닿는 느낌을 느끼며 걷습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하나 하나의 행동을 하면 훌륭한 명상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한 입 넣고 몇 번 씹는지 헤아리고 죽이 되어 삼키는 과정을 지켜본다면 식사 명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수시로 몸과 마음의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행동한다면 일상 명상이 됩니다.

**5-2** 깨어있음은 빛 속에 있음이고 깨어있지 못함은 어둠 속에 잠겨 있음입니다.

명상의 제일 요목은 깨어있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행동하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념하고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부분이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요. 내 몸, 내 마음이라 믿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어찌 90%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과는 거의 밖을 바라보거나 자동적으로 재잘거리는 상념 속에서 지냅니다. 바른 명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도록 이끕니다. 깨어있지 못한 삶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과 같지요. 장애물에 부딪치거나 구덩이(함정)에 빠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찔려 상처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깨어있음은 자신의 행동(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을 자각한다는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행동의 의미까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자기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주의를 돌리어 자신을 돌아봄(회광반조)은 명상의 핵심입니다.

**5-3** 호흡과 걸음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을 관찰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순간 그동안 어둠에 잠겼던 나의 전모가 희뿌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순간 순간 역동적으로 변하는 마음의 상태, 그 변화과정을 잠시라도 주의깊게 들여다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선 호흡부터 들여다 보고, 몸의 감각을 느껴보고, 기분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작업은, 마치 어린 아기를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살피는 엄마처럼,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무관심으로 내팽개쳐둔 자신을 돌봄, 지금 바로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봄은 명상의 핵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음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서는 안된다 조작하지 않음이며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수용하고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거친 대로 가쁘면 가쁜 대로 그냥 놔두고 지켜봄이 중요합니다.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감정 상태도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냥 바라보는 것이지요. 가치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면 호흡은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고 생각도 억지로 없애려들지 않아도 꼬리를 접게 됩니다. 격앙된 감정이나 침체된 감정도

**호흡 통해 마음 관조**
**사회적 공포 직관해**
**질환 극복 지혜 얻어**

바로 진정되지 않지만 그 또한 따뜻하게 품어 오래오래 지켜보면 앙앙 울어대던 어린 아이가 잠드는 것처럼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명상의 요체는 있는 그대로 바라봄(여실지견)입니다.

깨어있음은 알아차림을 낳고
알아차림은 올바른 이해를 낳고
올바른 이해는 지혜를 낳고
올바른 지혜는 궁극적 행복과 자유를 낳습니다

**5-4** 오늘은 고요하게 앉는 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과정을 온 마음 다하여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은 몸에 배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의도와 함께 호흡을 주시하고 자신의 몸을 살펴보는 것은 짬짬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수를 하기 전후 잠깐 틈(2-3분)을 내어 앉아보겠습니다. (아침에 바쁘다구요? 자기 전도 좋습니다, 웃음)

앉는 법은 우선 반듯이 허리를 펴고 앉는 게 중요합니다. 발은 평좌나 반가부좌 가운데 편한 자셀 취하시고, 처음은 힘드시면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손바닥을 펴서 두 손을 모아 자연스레 배 아래로 내려 놓으십시오. 두 엄지가 마주 닿도록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두손 모음이 편치 않다면 양 무릎위에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목은 반듯이 세우되 턱을 지긋이 당겨 시선이 바닥 50cm 정도 앞을 내려보도록 합니다. 눈의 긴장을 풀고 살며시 내려 감습니다. 이때 알아차리기를 하면서 서서히 눈꺼풀을 내려놓으세요. 눈 감으면 바로 존다구요? 괜찮습니다(웃음).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시선을 50cm 앞에 내리깔면 눈을 반쯤 감게 되군요.

이제 온 몸을 전후좌우로 흔들어 긴장을 풉니다. 어깨와 목에 힘을 주어 위로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턱 내려놓습니다. 고요히 앉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들어간 부위가 없나 살펴봅니다. 대개 목과 어깨, 턱, 등 부위에 긴장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되도록 편히 앉되 허리는 구부리지 않도록 합니다. .

이제 심호흡을 3-4차례 해보십니다. 호흡으로 주의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산란할 경우 1분 정도 심호흡을 해보세요. 내쉬는 숨에 몸의 긴장을 이완하는 것도 잊지 마셔요. 이제 자연스런 호흡으로 놔두시고 바라봅니다.

몸도 마음도 부드럽게, 편하게 그냥 바라보세요.

몸의 감각, 마음의 상태. 기분과 감정, 생각 등을 일어나는 그대로 실시간으로 바라보시되 고요히 예술품 감상하듯이 바라보십시오.

이제 고요히 머무르면서 몸이 바닥에 닿는 느낌에 주목하세요.

몸 주변의 공간도 느껴봅니다. 그 공간이 주변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음도 느껴보세요.

마칠 때는 마치겠다는 의도를 알아차린 후 서서히 자세를 풀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도 어떤 동작으로 일어나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5** 명상법을 복습하셨으니 다시 마음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탓하는 마음을 살펴보았듯이 오늘은 눈치 보는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눈치 보기, 눈치를 살피는 것은 아이 적부터 생긴 우리의 해묵은 버릇입니다. 그런데 눈치 보기가 심하면 병이 됩니다. 대인 공포증 사회 공포증 적면 공포증 같은.

탓하기와 눈치 보기는 서로 닮은 형제 같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요?(잠시 숙고)

예, 모두 고통을 피하려는 자기 방어책이군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미리 걱정합니다.

사실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인데도 내 것으로 삼아 걱정합니다. 이 걱정이 커지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듯이 병이 되고 말지요.

호랑이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까요.

호랑이를 그리던 화가가 갑자기 뛰쳐 나오면서 도망갑니다. 친구가 왜 그러냐 묻자 뒤를 손가락질하며 호랑이가 쫓아온다는 겁니다. 친구가 뒤를 보니 쫓아오는 호랑이는 없고 호랑이 그림만 있습니다. 워낙 생생히 잘 그려 마치 살아있는 호랑이같았지요.

우리의 상상이 정도가 지나치면 현실이 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곤 하지요. 그러면 그 경험이 강화되어 나중엔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그 상황을 피하려 도망칩니다.

이 배경에는 모두 관심받고자 인정받고자 사랑받고자 갈구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부 당할까봐 부들부들 떠는 아이는 힘 센 가해자에게 매달리고 굴종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 사랑을 잃을까 봐 대들지도 못합니다. 아니오(No)라고 자기 의사를 표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침묵으로 의사 표시를 해본다지만 상대는 오히려 힘없음을 확인하고 더욱 무안 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합니다. 결국 힘센 가해자의 무리로 속하거나 따돌림 당하여 고립되는 삶이 반복됩니다.

이런 애증의 지배-종속 관계는 집단에도 국가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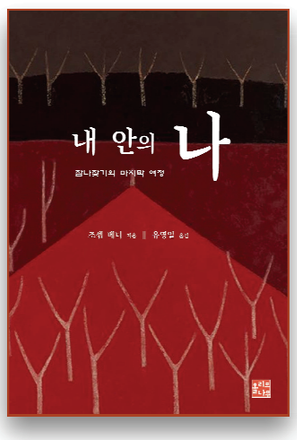
**5-6**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상처 받은 아이를 안아주어야겠군요.

눈치보고 있음을 먼저 바라보고 눈치보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아픔을 들여다 보아야합니다. 그 때 그 아이가 되어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때는 표현못한 아픔을, 억울함을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숨 죽이고 참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합니다. 탓하고 눈치보며 자신을 보호하던 해묵은 습관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고가 그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노라면 에고의 쓸모없는 애씀이 연민으로 다가옵니다. 더 이상 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 소모도 없고 있는 그대로 좋고 꾸미지 않으니 자연으로 살고 자연과 하나 되고 이 세상 모두와 연결된 소통의 삶이 되는 거지요. 삶을 떠난 깨달음은 없습니다. 어떤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 어떤 고통도 고통이 아닌 것은 무언가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스승입니다. 고성제(苦聖諦)입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져온 영성계의 클래식.
개체성을 넘어서자마자 참자아의 진풍경이 펼쳐진다.



내 안의 나
참나찾기의 마지막 여정

삶의 진실찾기 게임에 몰두하던 저자는 어느 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를 받아적기 시작하고, 이 말씀들은 나중에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거룩한 존재'의 비밀을 열어 보일 뿐만 아니라 자유와 풍요의 삶을 위한 생각활용법까지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 조셉 베너 / 유영일 옮김
* 국판 | 200쪽 | 값 12,000원

세상 전체를 떠받드는 거룩한 사랑의 큰 손이
내 숨결보다 가까운 어딘가에서 느껴진다. —아마존 독자 서평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라고 내 실존의 중심에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잘것없는 자아에 대한 집착은 왜 그렇게도 끈질기게 남아 있어서 모든 것이 구족되는 활활발발한 인생은 곧잘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는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는 물질 위주의 의식 찌꺼기들은 어찌하여야 깨끗이 청소될 수 있을까? 나의 참된 주인이 비로소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린다.

올리브나무 010-7755-2261, 070-8274-1226

직접 주문
02) 2004-8253
010) 7755-2261

* 교보, 알라딘, yes24, 인터파크 등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복과 지혜를 구하십시요"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동자승 등 수많은 불교그림들을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을 집안에 모셔두면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가족의 건강과 어려운 일들을 순조롭게 풀어줄 것이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길이 110㎝ 폭 54㎝ 가격 100,000원이며
두점이상 구입시 90,000원
나한도를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16나한이나 18나한도의 설명서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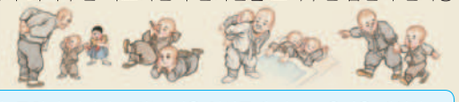

1. 관세음보살


2. 16나한


3. 황룡나한 / 복호나한

一切衆生皆有佛性 (일체중생개유)

1. 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비와 방생은 불자라면 누구나 지녀야 할 기본성품이며 관세음보살께서 방생하는 모습은 사부대중 모두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2.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이며 그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다. 나한은 해탈과 신통력을 두루 통달하였고 더 이상 열반에 들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많은 권속나한들과 함께 세상의 여러곳에 거처하며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의 복전이 되어 줄 것이다.
3. 황룡나한과 북호나한은 16나한과 함께 18나한으로 그려지기도 하며 황금색룡을 타고 다니며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황룡나한과 들어온 복을 지켜주고 삼재를 소멸하여 중생에게 수호신이 되어주는 복호나한 두분나한을 모셔두면 집안이 만사형통하여 하시는 사업과 자녀의 진학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 수강생 모집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그림을 배우고 싶으신 분은 현불샵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서울 인사동에 미술 교육관을 개설하여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주2일 월8일 동안 그림강의를 합니다. 수강료는 월10만원이며 그림 내용은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등을 지도하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83 호 현대불교
2020년 3월 4일(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4년



# 한 점 마음의 부동한 그 자체, 하나도 없는 그 하나가 우주를 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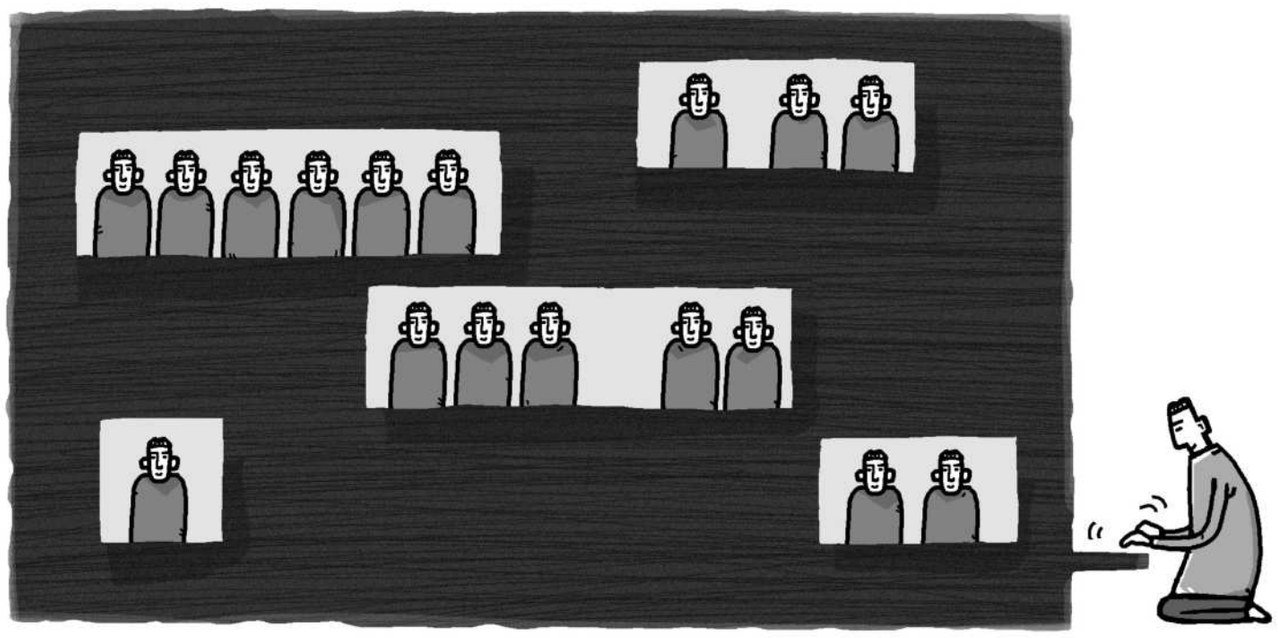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지금 갖은 각색으로 옮겨 가면서 나투어 가는데 마음 씀씀이를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아마 누구라도 못 내놓으실 겁니다. 내놓으실 수 없겠죠? 내놓을 수 없으면서도 다양하고 소소영영하게 씀씀이를 쓴다는 거, 그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이 몸뚱이 하나 하나가 혹성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혹성인데다가 기계적으로 돼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오는지 가는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거죠.

인간의 그 모든 기계적인 체가 생길 때에 바른팔에서 왼다리로, 왼팔에서 바른다리로 이렇게 꼬여서 삼등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김생김이, 기계의 조직이 이렇게 세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서도 왼쪽에서 바른쪽으로, 바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삼등분이 돼 있다는 그 사실도, 또는 상반신, 중반신, 하반신으로 친다면, 우리 몸뚱이도 한 혹성의 기계적인 자동 전자기나 다름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무전통신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머리에도, 즉 말하자면 "오관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항상 했죠. 그런데 감각이니 지각이니 하는 문제도 바로 우리 두뇌에 기계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또는 무전통신기도 바로 양면에 맞달려 있다 이겁니다. 기계같이 그렇게 돼 있고 천체망원경도 바로 뒤쪽으로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탐지기나 컴퓨터나 역시 다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오관을 통해서 하달을 하는 게 아니라 본부로 전합니다. 일단은 본부로 전해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전해서 본부에서 책정을 해야만이 바로 하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치에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 또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책정을 결정짓는 데에서 오는 거고, 정맥 동맥이 스스로 돌아가는 자동 펌프는 그대로 연방 초(秒)에, 즉 어디고 하달이 되지 않는 데가 없고 전달이 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본래 우리가 살긴 살되 가정에서 무슨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일은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또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더불어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짓고 나가야겠다, 이래야 산다, 또는 이런 일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 하고 서로 얘기하다 책정이 돼야만이 그것이 하달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그리고 순수하게 이렇게 그냥 살아나갈 때는 그냥 자동기가 돌아가죠,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항상 그런 책정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돼 있는 이 문제들을 지금 볼 때에, 아까도 오관을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되고 그렇게 초에 한 번, 맥박 뛰는 데에, 한 번씩 딱 하는 데에 벌써 다 돈 거예요, 손끝 발끝까지. 그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이 그 묘한 물건을, 기계적인 묘한 물건을 여러분이 지니고 바로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빠르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손끝 발끝을 하나 남김없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체라는 것이, 우리 인간 몸의 조직체가 얼마나 생명들이 많고 얼마나 공장장들이 많은가? 만약에 세포의 조직 공장장이 있다면 근육 공장장이 있어요. 이 공장장으로 하여금 모든 하달이 되고 모든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기묘하게요. 그리고 간장장, 쓸개장, 이자장, 소장, 대장, 직장 또는 콩팥장, 방광장, 이 등뼈의 우측장 또는 좌측장, 이 두뇌장…. 이 모두의 관할을 가지고 있는 이 장들이 밑에 하달을 해서 모두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자꾸 받아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수효가 얼마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위에서 장으로 직장까지 내려가게끔 그 모든 운영을 하는 데는 이 생명체들이 근육, 세포,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두 작용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잘 소화를 시키고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돼 있음으로써 똥도 버릴 수가 없죠. 똥에도 생명이 있고 똥에도 세균이 있어서 이익을 발부해 주고 또 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익만 준다고 해서는 아니 되죠. 그러면 이것이 오관을 통해서 모두 들이고 내고 본부로 전해지되, 본부에서는 움쭉 안 해도 자동 전자기처럼 그냥 그 한생각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기계적인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묘하게 기계적으로 돼 있는 이 한 점의 기계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뜻은 무엇이냐? 묘하게 그렇게 생겼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니라." 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부의 그 한 점의 마음이, 부동한 그 한 점이, 한 점이라고 세울 것도 없는 그 부동한 한 점이 모든 것을 책정하고…. 그런데 그 부동한 한 점이 여기에 나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각각 다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러면 인간에게만 그렇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고 방계 회사도 있고 뭐, 별의별 회사가 다 있습니다. 집안에서 쪼끄맣게 공장 하는 회사도 있고 물건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뚱이 안에도 수많은 회사가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본대도 나라가 그렇게 있는가 하면 회사가 그렇게 있고 그런데, 연쇄적으로 크다 작다 이것뿐이지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또 한 점 마음의 부동한 그 자체, 하나도 없는 그 하나가 바로 우주를 삼킨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건 왜? 전체 그것은 같으니깐 말입니다, 크나 작으나. 작은 회사는 뭐, 이름이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방편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큰 것도 회사고 작은 것도 회사다 이거야. 작은 나라도 나라는 나라고 큰 나라도 나라는 나라야. 그럼으로써 뭐든지, 미생물에서 점차적으로 진화돼서 나온 저런 생명들도 불성이 있는가 할 때 그것도 불성이 없는 게 없죠. 본래, 크나 작으나 생겼다 하면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많습니다. 전체 본부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부서에 하달이 되듯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 어느 공장에 불이 나서 죄 탄다 하면 본부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고 팔팔팔팔 뛴단 말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못해. 거기서는 받질 못해, 전달을. 불이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두뇌에 이 오관을 통해서 들기는 하는데 그게 직접 같이 돌아가질 않아.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그대로 돌아가는데, 그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만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럼 불이 났으면 난 거야. 그 수습은 못 해. 그만큼 났으면, 타게 되면 타게 되는 거고 쪼금 타고 고만두게 되면 고만두는 거고, 그거는 거기에 의해서 그냥 해 나가는 거라, 공장장에 의해서. 본부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살거든. 본부를 거치지 않고들 모두 여러분은 산다 이겁니다. 본부의 결정도 없이 공장장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비유해서 한번 볼까요? 공장 내에서 어떠한 수습을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를 통해서 정부에서 하달을 하게 되면 아주 금방 복구를 합니다. 또 금방 일들을 해내고, 전부 하달이 되고 말입니다. '영등포' 하면 영등포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달이 되는데, 여러분은 본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극난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본부에서는 천체 모든 세계의 왕이, 이 몸뚱이가 세계라고 한다면 그 몸뚱이 세계의 왕이, 본부에다가 해서 본부에서 하달이 돼서 한다면 초도 안 걸려.

그런 놈의 거를 아이구! 여기 이 다리가 저리고 이게 마비가 되고 무슨 어디가, 간이 어떻고 무슨 소장이 어떻고 대장이 어떻고…. 아무리 그래 봤자야. 아니, 본부에다가 전달을 안 하고 어떻게 거길 다 해결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 어떻게 해?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거라. 내가 차라리 그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해체하고 다른 공장을 또 만들고 이러는 것이 옮겨 가는 거라. 주인이, 본부가 없어지는 게 아냐. 그 생명들이 다 내 몸뚱이와 더불어 물질적인 것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데 합쳐져서 본부에서 그냥 하나로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로 됐다가 흩어져서 전부 공장을 세운다면 제가끔들 부서를 찾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럼 이 몸뚱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번 그런 걸 거론해 봐요. 다른 데 황무지가 됐다, 물이 안 난다 그 모든 문제들이 어떠한 문젠가. 여기 처음에 이사 오니까 물이 여기 통 안 난대요. 물이 안 난다고 야단법석을 하고

☞ 22면으로 계속



# 여러분은 본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극난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집도 못 짓고 그래서 돈을 많이 들여서 관악산 그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크게 파 가지고 선 이리로 조달을 하려니 무척 힘이 들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부 상응할 수 있다면 정부의 하달을 받아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 왜 물이 없겠습니까? 여기에서도 가게 하고 저기에서도 가게 하고, 모두 줄이 있는데.

또 어디가 폐허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대로 세계적으로 볼 때에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발 못 닿게 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지마는, 지금은 많이 닿지마는 그래도 닿지 못하는 데가 많죠. 개발하지 못한 데도 많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본부의, 즉 움죽거리지 않는 부동한, 즉 말하자면 근육이라 그래도 좋고, 부동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렇게 광대하고 무변한 것을, 솔직하게 말하자면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고 빌고 이러는 걸 종교로 안다면 이거는 너무나 잘못됐어. 이렇게 신선하고,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참모습이고, 하나하나 움죽거리는 대로 묘하고, 자동적인 기계면서도 그 기계를 움죽거리게 하는 그 자신의 성품이나 또는 자신의 본부가 있어서, 이 본부가 다 할 수 있는 그 부동한 자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품이 모든 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몸에도 어떤 한 군데가 마비가 됐다, 또는 이 생명체들이 죽으니까 간이 굳어 간다…. 생명이 죽어 가면 이게 굳어 가거든. 황무지가 되는 거라. 폐허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살릴 수가 없는 거지. 왜 살릴 수 없느냐. 본부에다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그냥 그걸 살리려니 힘들지. 회사가, 정부에 거론이 되지 않은 회사들은 한번 망하게 되면 망해, 그냥.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회사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 이걸 이렇게 비유해야 여러분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회사는 망하지 않듯이, 모든 일체 이 본부에서 하달을 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그게 마비가 되지 않아. 만약에 폐허가 될 지경이다 할지라도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어. 이건 자연의 법칙이면서도 묘한 자신의 근본적인 능력이야. 능력이 없으면 죽어! 어떠한 부분이든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무(無)의 상응력도 그렇고, 이 우주의 근본도 그렇고 모두가 내 힘이 없으면 죽어! 어떤 혹성이든지 마찰이 되고 끌리고 잡아먹히고 끌려가고, 이 지경이야. 지금 사람도 그렇지, 뭐. 자기 본부를 세우지 않고는 절대 그것은 승산이 없어. 이 몸은 무너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무너지고 이게 허황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한쪽이 기울어지는 거라. 살고 죽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닌 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옮겨 갈 수 있고 자동적으로 모습을 바꿀 수가 있는, 죽는다 산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기의 참 본부. 참 본부에서 모든 걸 해 나가야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내 몸뚱이가 세계다 이거야. 그래서 세계의 자신, 자삼보(自三寶)! 삼보는 바로 본부에서 삼보를 운영하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게, 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그렇게 그르쳐 나간다 말이야.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의학적으로 본다면 바른발이 아프면 바른발에다가 침을 놓거나 또 양의사도 바른발이 아프면 그 아픈 데를 수술하거나 또는 아픈 거기에 약을 쓰고 하죠. 근데 본디 정부에서 하는 일은 바른 다리가 아프면 왼다리를 쳐. 왼다리에서부터 조정을 해 나가. 왼다리가 아프면 바른다리에서부터 조정을 해 나가고.

그것은 왜 그런가? 이것이 바른 데서부터 왼쪽으로 가 있고, 왼쪽에서부터 바른 데로 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 도리가. 이 세계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야. 부스럼이 난 거나 뼈가 부러졌다거나 그런다면 그 자리를 하지마는 그렇지 않은 관절이라든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절대로 그것은 그렇게 한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내공 정부. 내공! 주인 정부! 허허허….

그러니까 몸에 비유를 한대도 이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리만큼 철저하게 해야만이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렇게 요 모습을 가지고 요기 있다가 요리로 갈 때에 요리로 간 거, 요 사람이 요리로 온 거는 아는데, 요기 가고 오고 요걸 모른다 말이야. 요 간 자리, 온 자리 이걸 모르는 거야. 요기서 요기 옮긴 것도 다른 모습으로 갖다가 탁 놓으면 모르는 거야. 똑 그 모습으로만 갖다 놔야 알지. 그런다면 여러분이 말이야, 즉 말하자면 당신 자식이나 또는 부모가 죽어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모습을 바꿨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 언제 적의 부모고 언제 적의 자식이냐 이거야. 자식도 부모도 없는 자리라 이거야, 이건. 자식이라는 소리가 붙지도 않고 부모라는 소리가 붙지도 않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즉 중생이고, 중생이 즉 부처니라. 즉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즉 색이니라." '즉'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철두철명한 거라. 왜 '즉'을 넣었을까 이거야.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 이러지, 왜 '즉' 소리가 들어갔느냐 이거야. 이 참 기묘하고 기묘한 도리.

여러분이 이렇게 앉았으니까 말이지 임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났으니까 말이지만, 내가 그전에도 정자와 난자가 한 번에 5억이나 들끓는다고 했죠? 왜 5억이라고 말을 했을까? 지금 의학적으로는 3천도 그냥 우수하게 되는데 왜 5억이라고 말을 했는가? 한 생명이 생긴다면, 물질이 생긴다면 그 물질 속에 그 생명이 얼마나 많기에 한 몸이 생기겠습니까? 아직 점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요러한 생명이 하나 생겼다 하면 벌써 구조는 다 있는 거라. 그러니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가 딱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여러 마리가 한 마리로서 전부 귀합이 되는 거야.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그 생명은 하나니까 거기로 다 해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야. 하나가 돼 버리니까 그거는 물로 그냥, 즉 말하자면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건 다 죽고 없어지고 한 마리만 된다 이러는데, 천만에! 5억 마리가 아니라, 만약에 개수로 따진다면 3천 마리라면 3천 마리가 한 마리가 돼 버리고 마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그 뜻을 우리가 모르고는 본부 맛을 못 봐. 그런 데다가 애가 들어설 때에도, 들어서서 삼 개월이 된다면, 삼 개월 되기 전만 하더라도 엄마와 자식과 탯줄에 의해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주고받고 주고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예가 있었죠.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고만 교도소에 가게 됐답니다. 걔를 낳을 때까지 그 교도소를 다녔답니다. 거길 다니면서 본 거라는 건 그거밖에 본 게 없어. 열 달 내내! 만 아홉 달을 만기가 되도록 그것밖에 본 게 없어. 허구장창 나서면 사식 가지고 다니고 허구장창 옷 가지고 다니고 그것 걱정하고 그냥, 모두 온통 그것 걱정이라.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걔가 어떻게…. (녹음 안됨) … 거기를 수백 번 수만 번 다녔다 할지라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을 말이야. 몸뚱이가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그 놈의 거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게 보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대로 들어간 거야. 그 영향이 어디 가겠어요? 물질의 영향도 보급이 되는 거고, 마음의 영향도 바로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신 집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만신 집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갈 줄 알고 고등학교 갈 줄 알고 대학 갈 줄 알고 대학원 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사회에도 나설 줄 알아야 인간이 아닐까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알 양으로 노력을 해 봤더라면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애한테로 다 미치는 거야. 그래서 그 유전을 받아 가지고 무당 어머니면 무당이 또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전이야.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소소하게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그 영향이 애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대로 영양이, 의학적으로는 먹는 대로 영양이 애한테 간다. 약을 먹으면 약의 영양이 가고 이런 것만 알았지, 보이지 않는 기묘한 그 뜻은, 그 전달이 되는 거는 도대체 모르거든.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내가 임신을 했다면 자기의 그 영향대로 거기에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 그러니 내가 작으면 그 아이도 작지 어떡하겠습니까? 영향을 자꾸 받았으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비록 가난하고 쪼달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야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모든 일이 전체 가난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허허 웃으면서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고 아마 허허, 하늘을 보고 웃을 거야. 이 정도로 돼야지, 지금 우리가 공마당에, 어떠한 손바닥만 한 데 오물쪼물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가정 내 가정 찾고 온통 야단들을 하는지 나는 도무지 아주…. 이 지구 한 덩어리 딱 놓고 따져 본대도 손바닥만도 못한 놈의 거를 가지고 온통 야단들이거든. 도무지 이게 될 노릇이냐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배 속에서 받는 영향은 너무도 큰 거야. 그런 데다가 사회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건 또 태어나서 받는단 말이야. 태어나 가지고도 받아, 그놈의 걸. 애 보는 데 별 욕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그저 나가고 들어오고…. 벌어먹는 것도 중하지마는 벌어먹는 것도 사람이 본부가 있다면 본부에다 연방 전달을 해 가면서 상응한다면, 만약에 부부가 벌이를 하느라고 애들을 놔두고 다니더라도 그 애들이 천생 착해. 본부가 항상 지키고 본부가 항상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들처럼 내버리고, 먹을 거나 주고 그저 조금 저거 하면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외롭고 '야, 집에 들어가 봤자야 뭐, 그것도 없는데 친구한테나 가야지.' 이럭하다 보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거 꼭 들어 둬야 할 일이라고!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남편이라도 생각해 주겠지.' 천만에!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살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아랑곳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천 리라도 쫓아다니면서 살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내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손이 안 닿을 때에 일하는 건 괜찮아. 와서 가깝게 닿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항상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돼야 돼. 동생이 돼 주고 딸이 돼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머니도 돼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풍부하고 그 본부의 근본을 따라서 오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야. 또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행을 다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또는 동생도 됐다가 아들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어야 그 집안은 화목하고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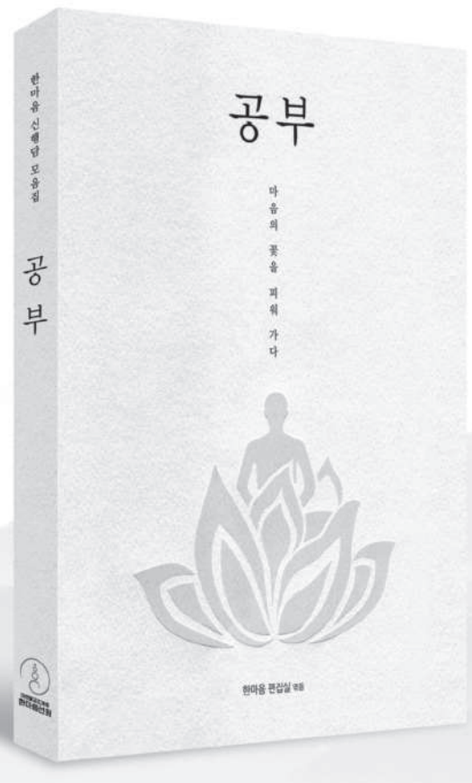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자기 주인공에 의해서 진실하게, 값싸게 찾지 말고 진실하고 무겁게…. 오뚜기가 무거워서 어디다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시장바닥에 내던져도 우뚝우뚝 서듯이.

여러분이 그렇게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길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본부를 찾는 법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3월 12일 일반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 암각화 기행

# 바퀴로 오신 태양신(神)



태양신이 땅으로 내려 오셨네

여덟 개 바퀴살은
완전함의 표상이네

바퀴살을 두 개 가진
동생들을 대동하고

빛이 필요한 곳
지혜가 필요한 곳에

빠짐없이 비추려고
땅으로 내려 오셨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태양은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신(神)의 역할을 한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완전 무상(無償)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태양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예나 지금이나 한 없이 고마운 존재다. 아주 오랜 옛날, 고대인들에게는 고마움을 넘어, 절대적인 경외(敬畏)의 대상이 되었다. 신(神)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게 되었을 것이다. 태양신은 어둠을 물리치고, 추위를 막아주며, 모든 존재들의 생명력이 되었다. 태양신은 큰 제단에도 모셔졌지만, 작은 바위틈에도 새겨져서, 백성들의 간절한 믿음의 귀의처가 되어 주었다.

태양신의 모습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화한다. 처음에는, 보여지고 느껴지는대로, 둥근 원형(圓形)과 빛살을 여러 형태로 그렸다. 그러다가, 빛살이 점차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간략해지거나 생략되어, 원(圓)과 십자가 형태로 단순화 되었다. 단순화 되고 절제된 문양들은, 현재 각 종교들의 여러 가지 형태의 표상으로 남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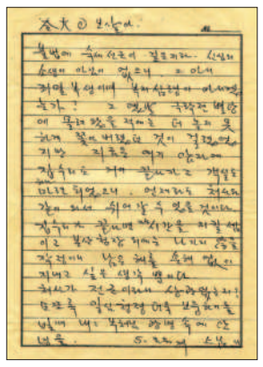
불교 경전 중에 〈대일경(大日經)〉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대일경〉의 주인공 부처님은 대일여래(大日如來)이다. 대일여래는 태양 부처님을 말한다. 일광여래(日光如來) 또한 같은 이름이고, 월광여래(月光如來)는 달 부처님을 말한다. 부처님의 높고 큰 지혜는, 생명의 근본인 태양에 비유되었고, 한량없는 자비심은 달에 비유되어, 해와 달은 부처님이 되었다. 해 부처님과 달 부처님의 높은 지혜의 빛과 한량없는 자비심으로, 세상 병고의 고통이 속히 멈추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대원성보살의
## 선지식 '산중서신'

⑤ 일타 스님 1

# 묵은 '미안함' 전해온 따뜻한 편지



**대원성 보살아,**

**불법에 숙세선근이 깊은지라 신심의 소생이 아님이 없으니, 그 아니 죄멸복생(罪滅福生)이며 복지심령이 아니겠는가. 그 옛날 극락전 별당에 몰려왔을 적에는 더 놀지 못하게 쫓아버렸던 것이 걸렸었지만 지금은 여기 암자에 집수리도 거의 끝나가고 객실도 마련되었으니 언제라도 처사와 같이 와서 쉬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집수리가 끝나고 나도 시간을 지킬 셈이고 번산 청장 외에는 나가지 않을 작정이니 남은 해를 손해 없이 지내고 싶은 생각뿐이다. 처사가 전근이라니 상관없는지? 모쪼록 일심청정 더욱 보중하기를 빌며 내내 부처님 광명 속에 안녕을.** 5월 그믐께 스님 서.

편지는 1976년 편지다.

1969년 여름, 처녀시절에 친구 두 명이 여름휴가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 나는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까지 내려온 친구들을 데리고 먼저 범어사(성수 스님이 주지로 계실 때)로 가서 스님을 뵙고 함께 차도 마시며 좋은 말씀도 들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통도사와 가천에서 과수원을 하신 스님을 차례로 찾아가 뵈었다. 친구들은 도회지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풍경과 좀처럼 가까이서 뵐 수 없는 스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해인사 극락전으로 일타 스님을 뵈러 갔다. 처녀 셋이 연락도 없이(그땐 전화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다) 갑자기 간 것이다.

스님은 스님의 방 옆방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오랜만에 모인 우리는 마음이 들뜬 나머지 밤이 늦도록 큰 목소리로 수다를 떨었다. 우리가 한참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일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절집에선 9시면 모두 자야하고 새벽 3시면 일어나야 합니다"고 하셨다. 스님의 경책에 우리는 잠시 조용해졌지만 어느새 우리는 언제 그랬나 싶게 다시 수다를 떨었다. 지금 생각하면 스님께 너무 죄송스럽다. 얼마나 난감하셨을까. 더구나 아랫방엔 수산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이 계셨었는데 대책 없는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이튿날 스님은 전날의 일로 대중들에게 미안하셨는지 대중처소에 공양도 못가시고 불편해 하시면서도 우리를 굶길 수도 없어 안절부절 하셨다. 스님은 고민 끝에 시자스님을 큰절로 보내 쌀과 수저를 얻어오게 하여 등산용 버너로 밥을 짓게 했다. 스님은 가지고 계셨던 작은 고추장 한 병을 내시고 마당에 자란 도라지 몇 뿌리를 캐어 고추장에 무치셨다.

5명이 밥솥에 둘러앉아 도라지무침 하나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잘 먹고 간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 스님은 주변 스님들 보기 부끄러우셨는지 얼굴 없이 방에서 잘 가라는 인사를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스님의 목소리에서 우리만 느낄 수 있는 스님의 따뜻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그 해 여름은 그렇게 우리에게 너무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편지는 그날의 일로 오히려 미안함을 전하는 스님의 편지다. 안자하신 스님은 그때 우리에게 편히 쉬게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몇년 후 지족암으로 거처를 새로 정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이 서신을 주셨다.



일타 스님(오른쪽)과 대원성보살.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GREEN EARTH

# 녹색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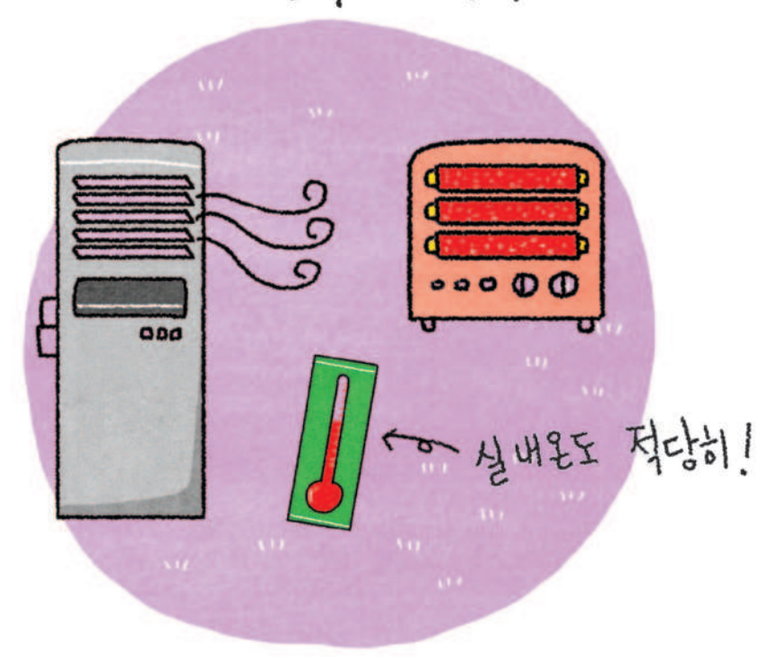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